

#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개선 방향

I. 들어가며 .....	1
II. 한국 경제에서의 수출 .....	2
III. 한국 수출 구조의 특성 .....	8
IV. 수출의 질 개선 방향 .....	20
V. 결론 및 시사점 .....	35
<부록> 한국 수출 기업 현황과 시사점 .....	37

작성 :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확인 : 팀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 < 요약 >

### 1. 연구 목적

#### □ 우리 경제에서 수출 위상 재조명 · 수출의 질 제고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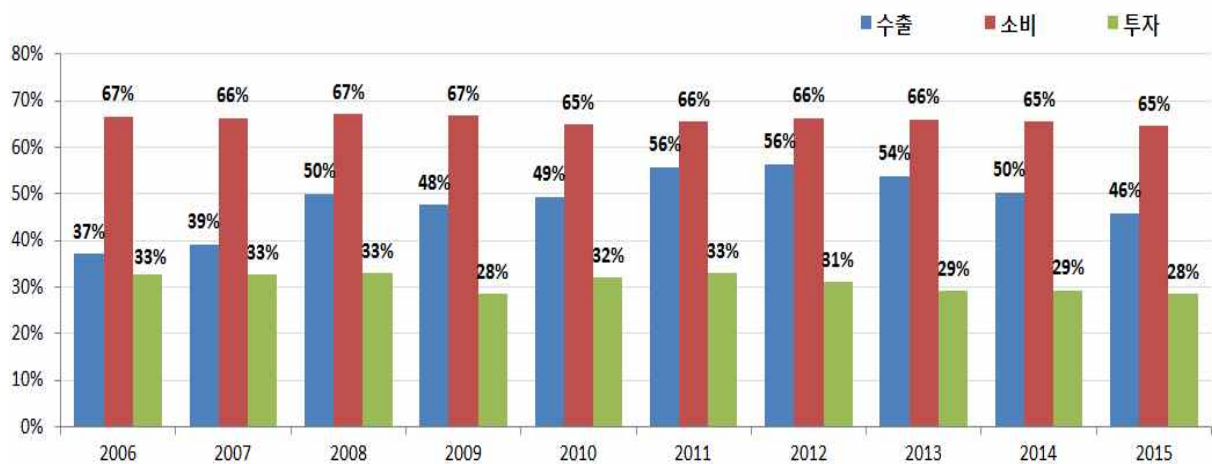
- 한국 경제 성장에서 수출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경제 성장의 축을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대두
-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수출이 호황이어도 수출 기업으로만 수익이 돌아갈 뿐 내수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출·내수 디커플링’ 현상만 심화돼 수출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수출 회의론’의 핵심
- 그런데 이러한 논의 뒤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지나치게 과도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오해가 내포되어 있거나, 수출과 내수의 연결 고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 현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 도출을 가로막기도 함.
- 수출과 내수는 상호 보완하며 균형적인 성장축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경제의 여건상 내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양적 확대 위주로 성장해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이 보완해 주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위상을 다시 점검하면서 현재 수출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 뒤, 수출의 국민 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제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출의 역할’을 재정립해 보고자 함.

## 2. 한국 경제에서의 수출

### □ GDP 내 비중, 소비(65%) > 수출(46%) > 투자(28%) 순

-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내 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이 50%라는 것은 국내 총 생산 활동의 절반이 수출에서 창출된다는 의미는 아님.
- 국내총생산(GDP)은 '최종소비지출(소비)+ 총고정자본형성(투자)+수출 - 수입'으로 구성되므로, 수입 부분을 뺀 세 항목의 합이 100%를 넘어가게 됨.
- 즉, 국내총생산 내 항목별 비중은 소비(65%) > 수출(46%) > 투자(28%) 순으로 높아, 수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되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내 총생산(GDP) 내 소비·투자·수출의 비중 (2006~201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수출 하락시 투자 위축 → 내수 위축 → 국내 총생산 감소로 연결

- 내수(소비+투자)의 경우 소폭 위축하기는 했으나 소비, 투자, 수출 세 분야만의 상대 비중으로 비교했을 때 60% 후반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는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해 비중 40%대를 유지해 왔으나, 투자 부분은 증가세가 하락함에 따라 내수 비중을 감소시킴.

### 소비·투자·수출의 비중 재구성 (합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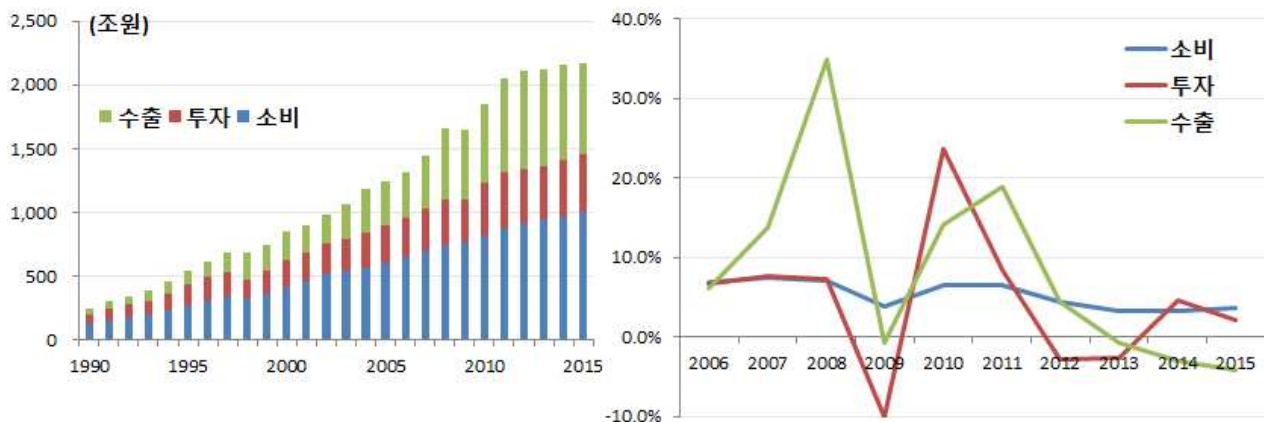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6~10 평균 증가율	11~15 평균 증가율
내수	소비	48.8%	48.0%	44.7%	46.8%	44.3%	42.5%	43.1%	44.3%	45.1%	46.5%	5.0%	3.7%
	투자	24.0%	23.6%	22.0%	19.9%	21.9%	21.4%	20.2%	19.5%	20.2%	20.5%	5.1%	0.3%
	소계	72.8%	71.6%	66.7%	66.7%	66.2%	63.9%	63.3%	63.8%	65.3%	67.0%	5.0%	2.6%
수출		27.2%	28.4%	33.3%	33.3%	33.8%	36.1%	36.7%	36.2%	34.7%	33.0%	11.7%	-0.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국내총생산 중 수입 부분을 제거한 '소비 + 투자 + 수출 합계' 내에서 비중으로 집계,  
평균 증가율은 생산액 증감의 연평균 증감율로 계산

- 투자 부분은 기계·설비 투자, 재고 증가, 건설활동 등으로 구성된 항목으로, 내수 분야로 포함되지만 최근 수출과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 소비·투자·수출 구성액 추이(左) 및 증감율 추이(右)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국내 소비에 의해서보다는 수출에 의해서 촉진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
- 따라서 수출과 내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 하락 → 투자 하락 → 내수 감소 → 국내 총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위축될 경우 자본 투자가 미약해져 내수 증진 및 성장을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

## □ 소비 중심 성장 한계 · 내수시장 안주로 경쟁력 상실 가능

- 국내 시장 규모 협소, 세계 경기 활황시 수출주도형 경제의 장점이 여전히 유효해, 1970년대 이후 수출 성장 국가 중 내수 중심 성장 전환 사례 거의 없음.
- 소비 중심 내수 주도형 성장은 경상수지 악화 초래, 미국과 같이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 외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며 성장 유지 어려움.
- 내수시장에 안주했던 일본의 경우 전자산업 등에서는 생산성 정체, 하락을 경험하다 글로벌 경쟁력 상실

## 3. 한국 수출구조의 특성

### □ 고부가 중간재 수입 의존도 높아 부가가치 유발도 낮은 한국 수출 구조

- 수출의 수입 유발계수는 2014년 0.424 수준으로 수출액이 증가해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수입에 지출하고 있는 구조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2014년 기준 미국(0.872) > 중국(0.826) > 일본(0.789) > 독일(0.712) > 한국(0.633) 순으로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음.
-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낮은 이유는 수입 중간재를 활용해 가공 수출을 하는 전자, 기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향후 수출의 부가가치율을 높이기 위한 소재, 부품 등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간재 국산화 및 최종재의 고부가가치화, 고부가가치 수출품 발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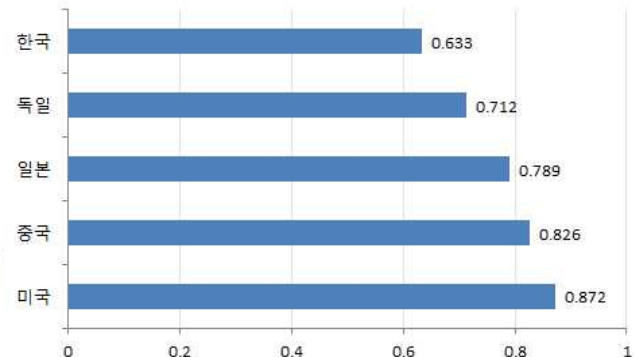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단위 : %p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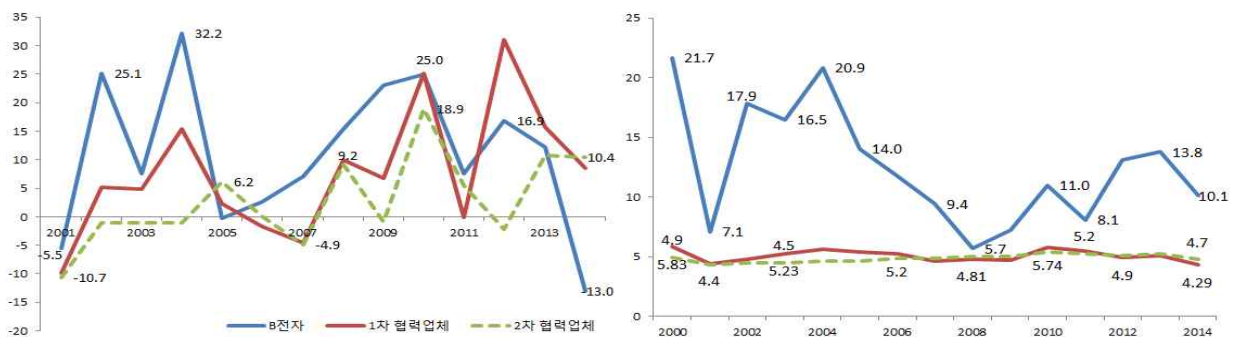


자료 : wiod.org,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재인용

□ 협력 중소중견기업 성장 제한으로 수출 부가가치 개선도 미진

-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관리 관행, 협력기업 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는 하락 추세
  -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성장성에는 소폭 유의한 효과를 주나 수익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수익성이 낮게 관리되는 탓에 협력 중소중견기업들은 차기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해져, 기술 변화시 협력기업에서 누락, 수출대기업과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하는 한편, 국내 수출의 부가가치 수준도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 지속

A전자와 협력업체 매출액 증가율 추이(좌) 및 영업이익률 추이(우)



□ 수출의 취업유발도는 낮지만 창출되는 고용의 질은 더 우수

-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수출 10억원당 8.1명으로, 소비의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15.2명, 투자의 취업유발계수 13.1명 및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 12.9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수출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취업이 유발되는 산업은 장비 집약적이거나 기술 집약적인 분야가 많아 취업 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취업 유발계수도 낮게 집계됨.
- 그러나 수출과 투자가 소비에 비해서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아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는 제한적이지만, 창출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높아 고용의 질은 더 우수하며 증가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날 때에는 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분야의 취업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 투자와 수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에는 전자,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 및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 고

부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됨.

- 월평균 급여로 비교시 수출로 월평균 급여 278만원의 일자리가, 투자로는 월평균 급여 296만원의 일자리가 유발돼, 소비가 유발시키는 월평균 급여 261만원의 일자리에 비해 고용의 질은 더 우수

#### 소비·투자·수출이 유발하는 취업 분야 및 임금

	취업 유발 상위 산업	월평균 급여
소비	도소매 서비스(15.5%), 문화 및 기타서비스(12.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1.4%), 농림수산물(11.2%), 교육서비스(9.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6.7%)	261만원
투자	건설(3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19.0%), 도소매서비스(12.3%),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4.7%)	296만원
수출	도소매 서비스(18.7%), 운송서비스(12.6%), 전기 및 전자기기(7.4%), 사업지원서비스(7.1%), 운송장비(5.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5.3%)	278만원

#### 한국 수출구조의 특성

한국 수출 구조 특성	현 상	원 인
	수출의 수입 유발도 ↑ : 수입유발계수 0.424, 2016년 순수출 성장기여도(-0.5)	- 고부가가치 수입 중간재 의존도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도 ↓ : 미국(0.87)>중국(0.83)>일본(0.79)> 독일(0.71) > 한국(0.63)	- 수출대기업과 부품기업의 협력 약화 → 국내 협력기업들의 기술개발 여력 상실
	수출의 고용 유발도 ↓ : 수출 10억원당 8.1명 취업유발 고용 질은 상대적 우수	- 수출은 장비집약산업에서 취업 유발 - 유발 인원 작으나 임금은 높음.

## 4. 수출의 질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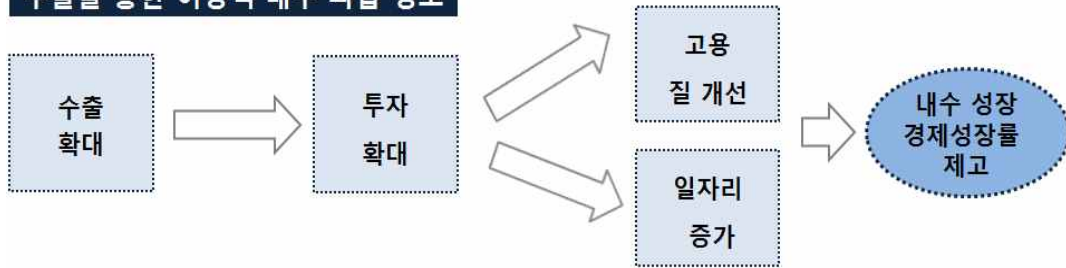
□ 대기업 중심 수출 개선 및 투자 확대·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 질 제고

-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출이 확대되면 투자 확대 및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증가하며, 특히 수출과 투자가 견인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 내수 성장이 견인되고 경제성장률도 제고되어야 함.



## 수출 성과의 내수 파급 경로

### 수출을 통한 이상적 내수 파급 경로



### 현재의 수출·내수 디커플링 상황



- 그런데 현재 상황은 수출 주도 대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중간재 투자는 미흡하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도는 떨어져, 수출 대기업의 수익은 내부에 유보되고 있지만 수출의 수입 유발도는 높아지고 부가가치 유발도는 하락해 수출 성과의 내수 파급력이 약화됨.
- 따라서 수출 성과의 내수 파급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막연히 수출 대신 내수 위주로 성장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출 구조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수출의 성장 견인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
- 이에 따라 현재 과거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온 과거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대기업 중심 수출에서 파생되는 높은 수입 중간재 의존도, 고용 유발력 약화, 부가가치율 하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수출의 질적 개선 방향 제안

### □ 수출대기업 유보금 활용한 부품기업 협력 강화로 중간재 고부가가치화 전환

- 수출 상위 50대 기업들의 수익 중 영업잉여액과 감가상각비 등 내부 유보 가능 재원은 약 110조원(영업잉여 55.4조원, 감가상각비 54.8조원)이며, 이 가운데 배당·투자를 제외한 49.3조원이 유보되고 있어 기업 내부자금 여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 수출기업 자금 흐름도 (2015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출기업 부가가치 구성 및 고용·투자 분석”

주: 수출액은 2011~2015년 평균 수치 적용

- 수출 대기업의 내부 자금 여력이 높은 까닭은 높은 영업잉여액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높은 영업잉여액을 거두기 위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적정마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낮은 마진의 영향으로 협력 기업들의 기술 개발 여력이 떨어져 부품 혁신 능력 하락을 초래해 수출 대기업의 제품력 개선에도 한계 발생
- 따라서 수출 대기업들이 부품 기업들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부품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 수입 부품을 대체해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 □ 선진국형 기술 전환 위해 M&A 등 통한 지식 축적 체제 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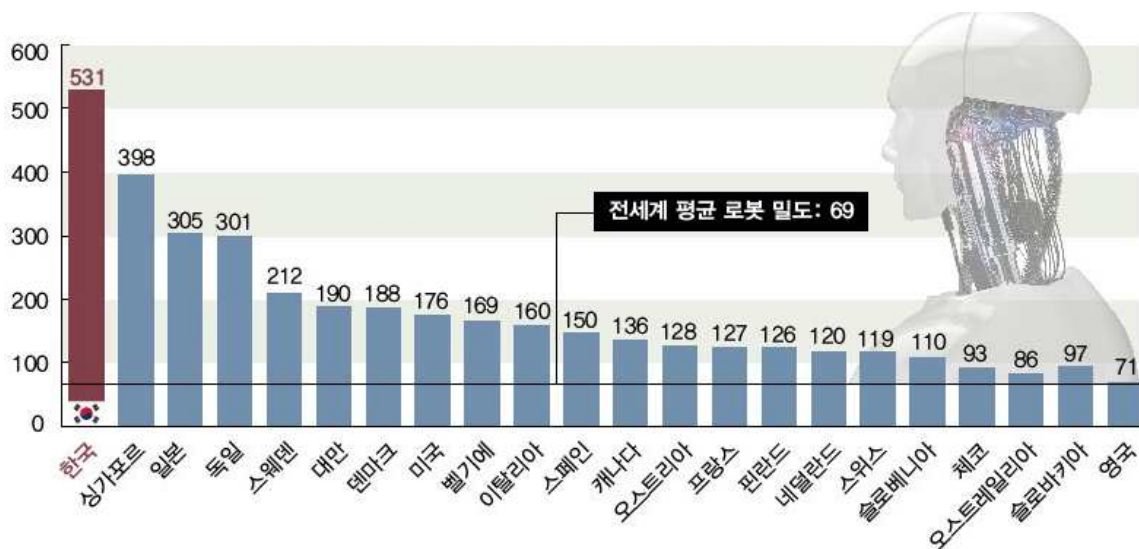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과거 추격 단계에서 기술 수명이 짧은 산업 위주로 선진국 기술을 추격을 해 성공을 거두었지만, 추격을 완성한 시점에서는 수명이 긴 기술 위주로 전환 필요
-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기술 수명이 긴 부품소재, 바이오 의약 분야 등으로 진입해 선진국형 지식 생산 체제로 변모하려고 하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

- 수출 대기업들도 실패 위험 때문에 내부 자금을 유보하고도 신기술 투자를 지연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M&A, 협력 연구 등 '결합을 통한 지식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함.

□ 설비 중심에서 신산업·인력개발 중심으로 투자 전략 전환·고용효과 제고

- 우리나라의 총투자율(=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32.9%('11)→ 30.8%('12)→ 29.0%('13)→ 29.3%('14)→ 28.5%('15)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총투자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68.2%로 OECD 회원국 내 상위 수준이어서 기업의 투자율 자체는 높은 상황
- 그런데도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높지 않은 까닭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 포트폴리오상 장치산업 비중이 높고, 설비 투자 중심이어서 고용 유발률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투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
- 그 결과,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도입 수가 531대로 싱가포르(398대), 일본(305대), 독일(301대) 등을 제치고 주요 조사대상국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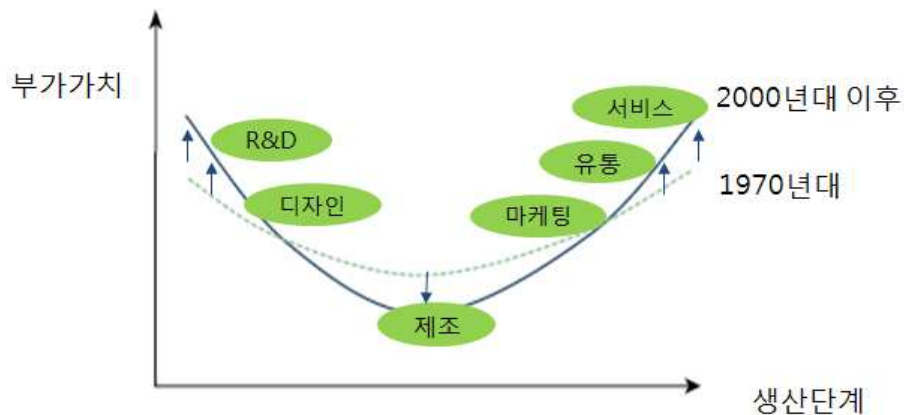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



자료: 세계로봇연맹(IFR, 2016), 한겨레 신문에서 재인용

- 따라서 단순히 설비 자동화에서 탈피해 가치사슬상 고부가가치 영역인 R&D, 마케팅 등의 영역으로 투자 중심축을 전환해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 획득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에는 없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 효과 개선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상 부가가치 스마일 커브>



- 아울러 신산업 창출 및 이에 대응하는 인력 개발을 동반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수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 전환이 필요

#### □ 중소기업 수출화를 통해 기업 성장 발판 마련 · 일자리 창출

- 과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생산해 수출하는 형태의 성장 전략이 자리잡아 중소기업의 수출은 주요 과제에서 벗어나 있었음.
- 그러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중소기업들간의 경쟁 심화, 대기업과의 역학 관계 등으로 과거 성장전략이 추구하던 중소기업 '낙수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 자체의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성장 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 시장이 성장 한계를 노출하거나, 시장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같은 글로벌화 활동이 필수적
  - 과거 한국의 대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한 것과는 달리, 최근의 중소기업들은 수출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분석 가능
-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신규 고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미 생산성을 최고조로 향상시켜 고용 유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음.

## 대·중소기업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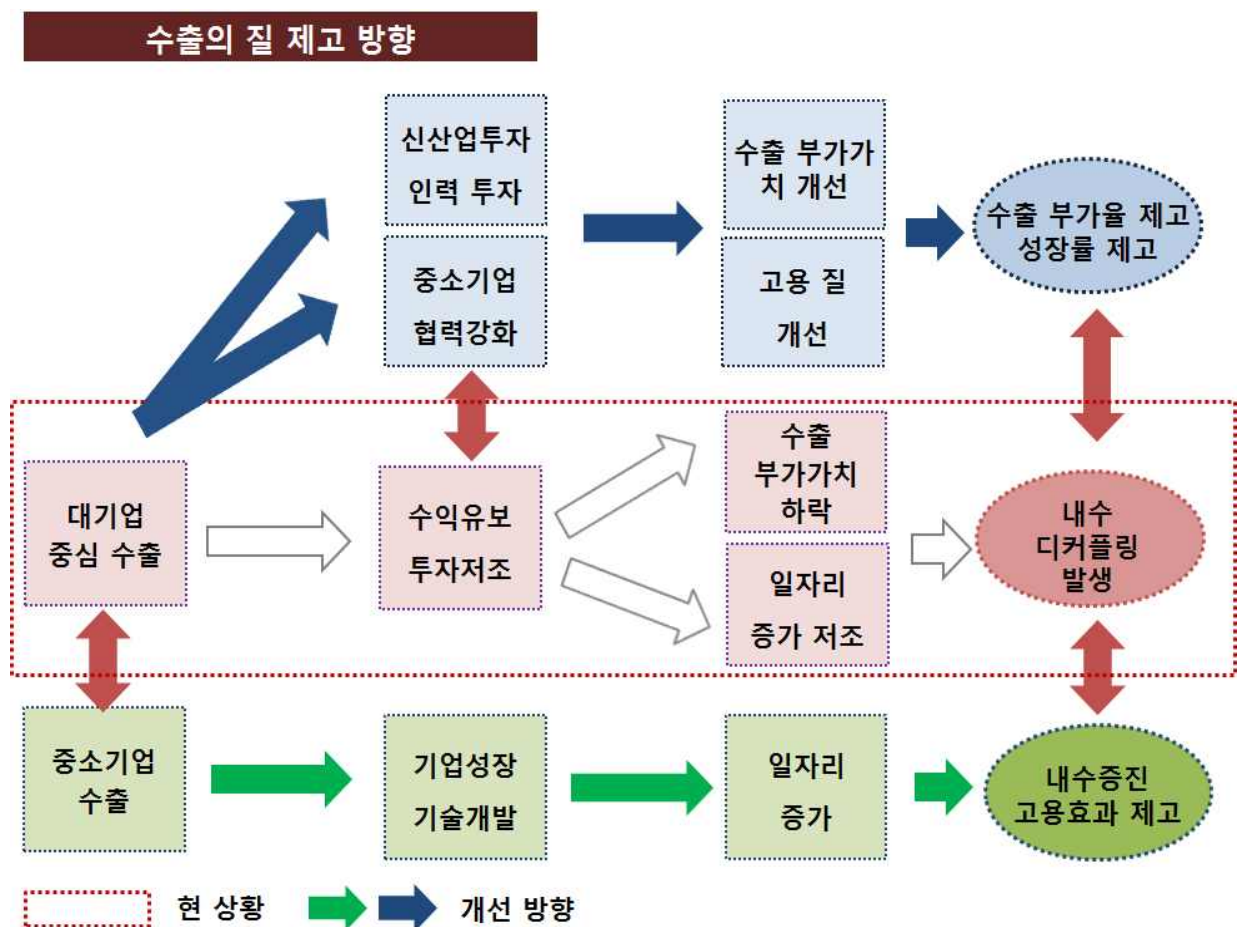
단위: 명/십억원

	대기업(A)	중소기업(B)	편차(A-B)
제조업	5.5	9.7	-4.2
소비재	12.7	15.0	-2.3
기초소재	3.8	7.0	-3.2
조립가공	5.9	8.9	-3

자료: 산업연구원 '2013년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과 분석'

주: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 2013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작성됨.

## 수출의 질 제고 방향 개념도



## I. 들어가며

### □ 우리 경제에서 수출 위상 재조명 · 수출의 질 제고 방향 제시

- 한국 경제 성장에서 수출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경제 성장의 축을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수출이 호황이어도 수출 기업으로만 수익이 돌아갈 뿐 내수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출·내수 디커플링’ 현상만 심화돼 수출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수출 회의론’의 핵심
- 그런데 이러한 논의 뒤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지나치게 과도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오해가 내포되어 있거나, 수출과 내수의 연결 고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 현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 도출을 가로막기도 함.
- 수출과 내수는 상호 보완하며 균형적인 성장축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경제의 여건상 내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양적 확대 위주로 성장해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이 보완해 주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위상을 다시 점검하면서 현재 수출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 뒤, 수출의 국민 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제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출의 역할’을 재정립해 보고자 함.

## II. 한국 경제에서의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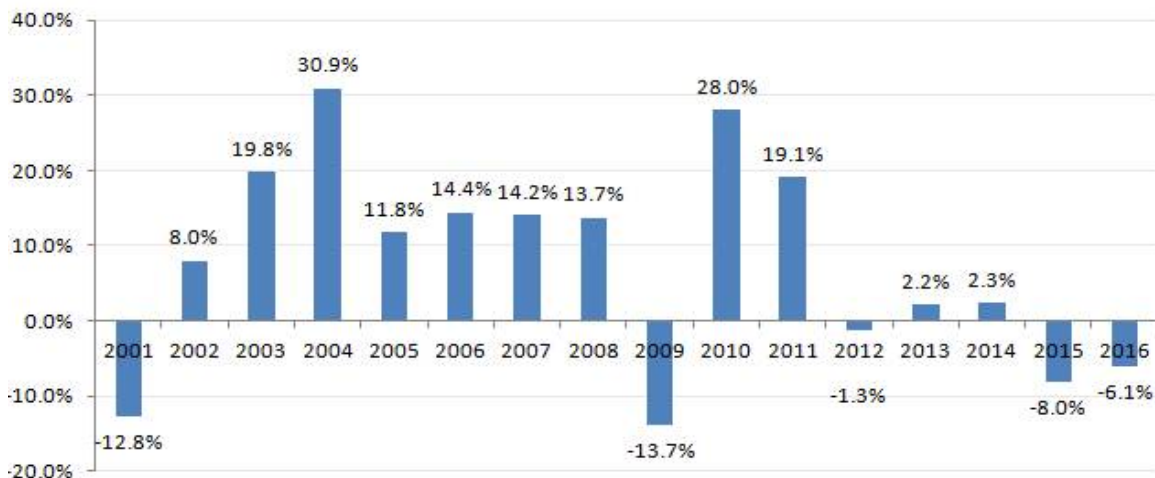
### 1.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의 위상

□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을 위축 주도·최근 회복되자 수출·내수 디커플링 대두

○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 증가율도 하락함에 따라 수출 주도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대두됨.

- 2003~2011년 평균 15.4% 성장하던 우리 수출 증가율은 2012~2016년에는 평균 -2.2%로 하락하며 최근 경제 성장을 위축을 견인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주: 통관기준, 달러

○ 한편으로는 최근 부진했던 수출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경기 회복으로는 연결되지 않아, 수출이 더 이상 우리 경제에서 성장 동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기도 함.

※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 : 2.3('16.11)→6.3(12)→11.2('17.1)→20.2(2)→13.7(3)

※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동월비, %) : 2.5('16.10)→3.2(11)→1.8(12)→4.2('17.1)→0.5(2)

□ 국내 총생산(GDP) 내 수출 비중, 70년대 20%대 → 2010년대 50% 이상

○ 일반적으로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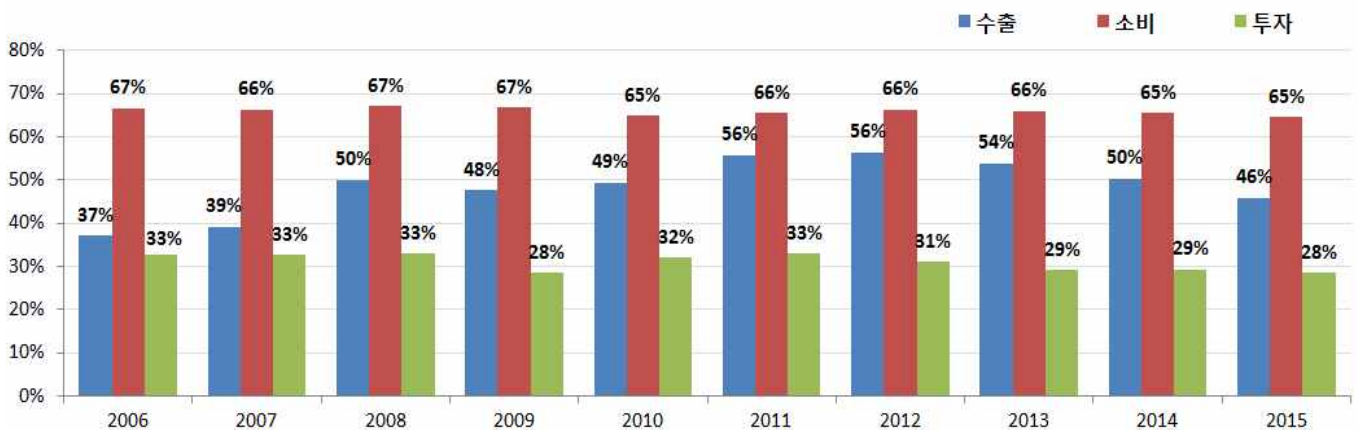
○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년대 평균 20% 내외



에서 점차 증가해, 90년대 중반 이후 30%대로 정착했고, 2000년대 후반 40%를 넘어서 2010년대 이후에는 평균 52%까지 늘어남.

- 2012년 최대치인 56.3%까지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수출이 소폭 감소해 45.8%로 감소

국내 총생산(GDP) 내 소비·투자·수출의 비중 (2006~201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GDP 내 비중, 수출이 최고? : 소비(65%) > 수출(46%) > 투자(28%)

- 이와 같이 국내총생산에서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모습까지 보이자 수출 비중을 낮추고 내수를 진작해 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
- 특히 수출이 증가해도 국내 경제로 파급되는 부분이 떨어진다는 분석들이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림.
- 그런데 국내총생산(GDP) 산식 구성상, 국내 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이 50%라는 것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총 생산 활동의 절반이 수출에서 창출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혼용되면서 '과도하다'는 오해를 전달하게 된 측면이 있음.
- 국내 총생산(GDP)은 지출 항목별로 민간 및 정부에 의한 '최종소비지출(이하 '소비')' +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 투자 등으로 구성되는 '총고정자본형성(이하 '투자')'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이하 '수출')' -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이하 '수입')'로 구성됨.
- 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

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여 합산 것이므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부분을 빼 주어야 최종 부가가치의 합이 될 수 있기 때문

- 이 과정에서 최종소비지출('소비')과 총고정자본형성('투자') 부분을 일반적으로 '내수'라 일컬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부분을 '순수출'로 칭함.

$$\begin{aligned} \text{국내총생산(GDP)} &= \text{최종소비지출(소비)} + \text{총고정자본형성(투자)} + \text{수출} - \text{수입} \\ &= \text{내수 (소비 + 투자)} + \text{순수출 (수출 - 수입)} \end{aligned}$$

- 따라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입을 제외한 소비, 투자, 수출 세 항목만의 합을 구하면 100%를 넘어가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인해 오해 발생 가능
-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70년대 이후 수출이 20%대에서 50%대로 증가하는 동안 소비는 8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투자는 20% 후반대에서 30% 후반대까지 증가해 오다 최근 30% 초반대로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총생산(GDP) 내 소비·투자·수출의 평균 비중

		71~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11~15
내수	소비	80.2%	71.8%	69.3%	60.7%	61.6%	63.4%	65.9%	66.3%	65.5%
	투자	27.9%	34.1%	32.5%	36.0%	38.9%	33.5%	31.8%	31.7%	30.1%
수출		20.9%	25.9%	28.4%	30.0%	24.8%	32.8%	34.5%	45.1%	52.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국내총생산(GDP) = 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 소비·투자·수출의 국내 총생산액

단위 : 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6~10 평균 증가율	11~15 평균 증가율
내수	소비	643.4	691.7	740.8	769.6	819.8	873.5	911.9	942.3	972.9	1,008.4	5.0%	3.7%
	투자	315.9	339.9	364.7	327.8	405.2	439.2	427.0	416.0	435.1	444.0	5.1%	0.3%
	소계	959.3	1,031.6	1,105.5	1,097.4	1,225.0	1,312.8	1,339.0	1,358.3	1,408.0	1,452.4	5.0%	2.6%
수출		359.1	408.8	551.8	547.6	625.3	742.9	776.1	770.1	747.1	715.4	11.7%	-0.9%
수입		351.5	397.1	551.9	493.7	585.0	723.0	737.6	698.9	669.1	606.9	10.7%	-4.3%
국내총생산 (GDP)		966.9	1,043.4	1,105.4	1,151.4	1,265.3	1,332.7	1,377.5	1,429.4	1,486.1	1,560.8	5.5%	4.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내총생산 내 항목별 비중의 크기로는 2015년 기준으로 소비(65%) > 수출(46%) > 투자(28%) 순으로 소비의 비중이 가장 높아, 수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되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는 없음.

## 2. 수출과 내수의 관계

□ 수출 하락시 투자 위축 → 내수 위축 → 국내 총생산 감소로 연결

- 국내총생산 중 수입 부분을 제외한 소비, 투자, 수출만의 상대 비중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표 '소비·투자·수출의 비중 재구성'과 같이 세 분야만의 합계액 내에서 비중을 다시 집계

소비·투자·수출의 비중 재구성 (합계=1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6~10 평균 증가율	11~15 평균 증가율
내수	소비	48.8%	48.0%	44.7%	46.8%	44.3%	42.5%	43.1%	44.3%	45.1%	46.5%	5.0%	3.7%
	투자	24.0%	23.6%	22.0%	19.9%	21.9%	21.4%	20.2%	19.5%	20.2%	20.5%	5.1%	0.3%
	소계	72.8%	71.6%	66.7%	66.7%	66.2%	63.9%	63.3%	63.8%	65.3%	67.0%	5.0%	2.6%
수출		27.2%	28.4%	33.3%	33.3%	33.8%	36.1%	36.7%	36.2%	34.7%	33.0%	11.7%	-0.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국내총생산 중 수입 부분을 제거한 '소비 + 투자 + 수출 = 100%' 내에서 비중으로 집계, 평균 증가율은 생산액 증감의 연평균 증감율로 계산

- 세 분야 합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은 33%, 소비는 46.5%, 투자는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비중은 67% 차지
- 수출은 2006년 27.2%에서 2012년 36.7%까지 증가해 오다 최근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33%로 하락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대략 30%대를 유지
- 내수 분야는 2006년 72.8%에서 2012년 63.3%까지 줄어들기도 했으나 6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항목별 구성 비율을 살펴 보면 소비 부분은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해 비중 40%대를 유지해 왔으나, 투자 부분은 증가세가 하락함에 따라 내수 비중을 감소시킴.
-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6~2010년 5.0%, 2011~2015년 3.7%로 두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6~2010년 5.1%에서 2011~2015년 0.3%로 크게 하락

- 투자 부분은 기계·설비 투자, 재고 증가, 건설활동 등으로 구성된 항목으로, 내수 분야로 포함되지만 최근 수출과 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음.
-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6~2010년 11.7%, 2011~2015년 -0.9%로, 동기간 투자의 증가율과 비슷한 증감 추이를 나타냄.

소비·투자·수출 구성액 추이(左) 및 증감율 추이(右)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국내 소비에 의해서보다는 수출에 의해서 촉진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
- 따라서 수출과 내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 하락 → 투자 하락 → 내수 감소 → 국내 총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출이 저조한 상태에서는 내수 증진이 쉽지 않음을 보여줌.
- 즉,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위축될 경우 자본 투자가 미약해져 내수 증진 및 성장을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수출은 국민경제 상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냄.

#### □ 기축통화 없이 소비 중심 성장 한계·내수시장 안주로 경쟁력 상실 가능

- 이론적으로는 저소득 단계 국가가 저임금과 수출을 동력으로 고성장을 한 뒤, 경제 전체의 규모가 늘어나면 상품과 서비스의 국내 수요를 증가시켜 내수 중심의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 이상적으로 여겨짐.
-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 한정하면 수출로 고성장을 이루던 국가 중 내수 중심으로 전환된 사례를 찾기 어려움

- 내수주도의 성장을 하기에는 각국 국내 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세계 경기가 활황일 때 수출주도형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
- 특히 소비 중심의 내수 주도형 성장은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해, 미국과 같이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는 통화 가치를 유지하며 성장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며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움.
- 거대한 내수시장에 안주했던 일본의 경우 생산성 정체, 하락을 경험하다 글로벌 경쟁력 상실해 내수침체를 겪으면서 위기를 맞는 사례까지 빈번히 발생
- 소재, 부품, 조립 과정을 일본 안에서 '원 세트'형으로 갖추었던 일본은 내부지향성으로 인해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제약이 되었다는 평가

### III. 한국 수출 구조의 특성

#### 1. 수출의 수입 유발 효과

##### □ 수입 비중 높아 순수출(수출-수입) 성장기여도 저조

-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9년을 제외하고 2~7%p 내외의 수준을 차지하다 2014년 이후 1%p 내외 수준으로 하락해, 2006~2016년 평균 3%p 기록
- 동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3.5%이고,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의 두 배가량인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2.9%p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그러나 수출에서 수입 부분을 제한 부분을 나타내는 순수출 기여도는 동기간 평균 0.6%p에 불과하며, 최근 2015~2016년에는 이마저도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짐.

#### 내수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

단위 : %p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내수 (A+B)	5.0	5.0	1.1	-2.4	7.9	2.9	0.7	1.5	2.8	3.6	3.4	2.9
소비 (A)	3.4	3.5	1.4	0.9	2.8	1.8	1.5	1.5	1.3	1.6	1.8	2.0
투자 (B)	1.6	1.5	-0.3	-3.3	5.1	1.1	-0.8	0.0	1.5	2.0	1.6	0.9
순수출(C-D)	0.2	0.5	1.7	3.2	-1.4	0.9	1.5	1.5	0.4	-1.1	-0.5	0.6
수출 (C)	4.4	4.7	2.9	-0.2	6.0	7.5	2.8	2.4	1.1	0.4	0.7	3.0
수입 (D)	4.2	4.2	1.2	-3.4	7.4	6.6	1.3	0.9	0.7	1.5	1.2	2.3
경제성장률	5.2	5.5	2.8	0.7	6.5	3.7	2.3	3.0	3.3	2.6	2.7	3.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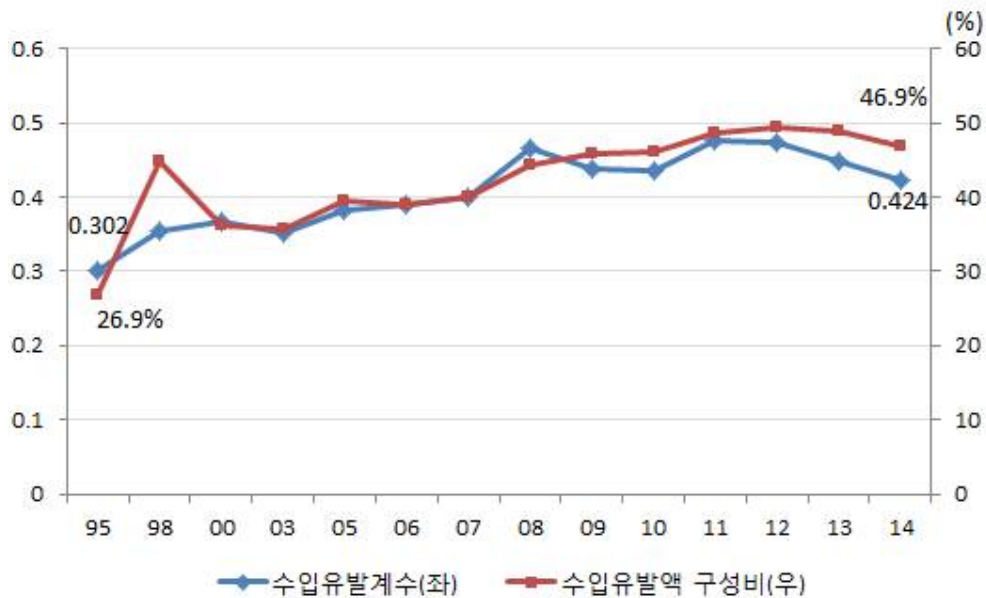




□ 수입유발계수 높아 1000원 수출할 때 424원 수입 유발

- 이와 같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까닭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 생산시 원자재, 소재, 고부가가치 부품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출의 수입 유발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
- 수출의 수입 유발계수는 1995년 0.30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수출 성과가 높았던 2011년 0.477까지 올랐다가 2014년 0.424 수준
- 수출의 수입 유발계수가 0.424라는 것은 수출이 1000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액이 424원이라는 의미로, 수출액이 증가해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수입에 지출하고 있는 구조
- 수입 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합은 1으로, 수입 유발계수가 높아질수록 국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유발 비중은 낮아지게 됨.

수출의 수입유발계수(左) 및 수입액 중 수출 유발 비율(右)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수입액 내에서의 비중(2014년)도 수출에 의한 수입 유발액이 전체 수입액의 46.9%로 95년 26.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민간소비지출(28.8%), 민간고정자본형성(18.1%)에 의한 수입유발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 가. 투입 구조에 의한 효과

□ 국내총생산 중 수입중간재 비중, 한국 > 독일 > 일본 > 미국 > 중국

-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 Output Table, WIOT)를 활용한 주요국과의 투입 구조\*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은 수입 중간재 비율이 높아 국내 총생산에서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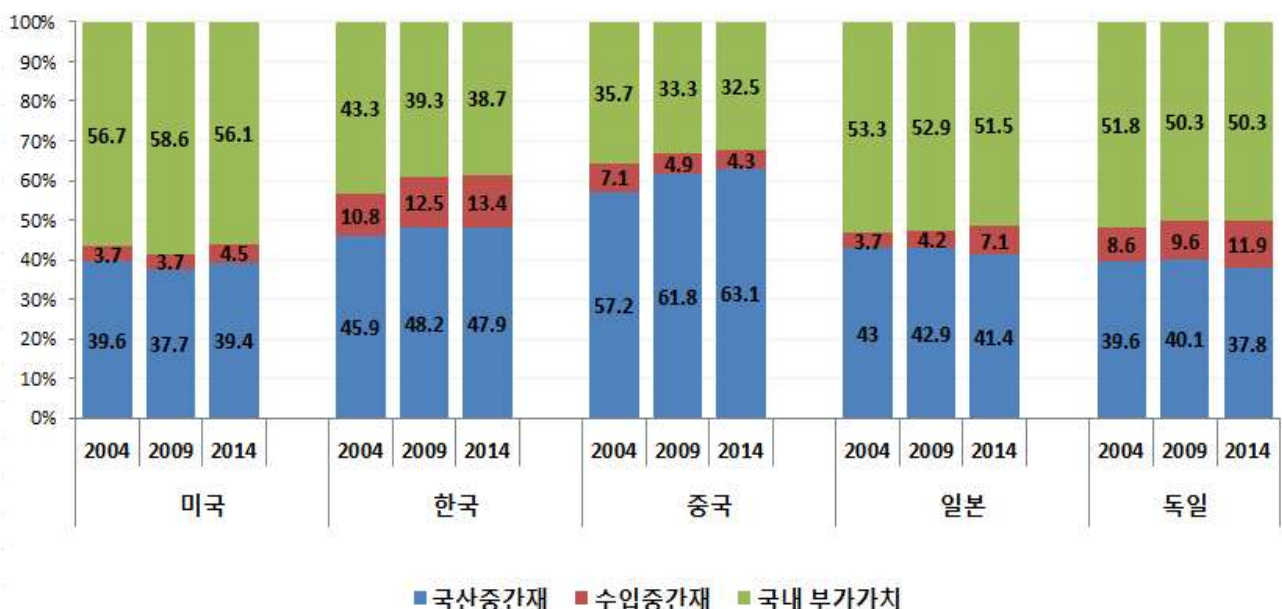
\* 국가별로 총투입에서 국산 중간재, 수입 중간재,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해 비교

-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로 세계 중간재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주요국 모두 국내 총생산에서 수입 중간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수입 중간재 비중이 일본, 미국 등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중간재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수입 중간재 비율이 감소 추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내 총생산 중 부가가치 비중이 56.1%로 가장 높고 일본, 독일 등이 모두 국내 총생산 중 부가가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부가가치 비중이 30%대로 낮은 수준

주요국 투입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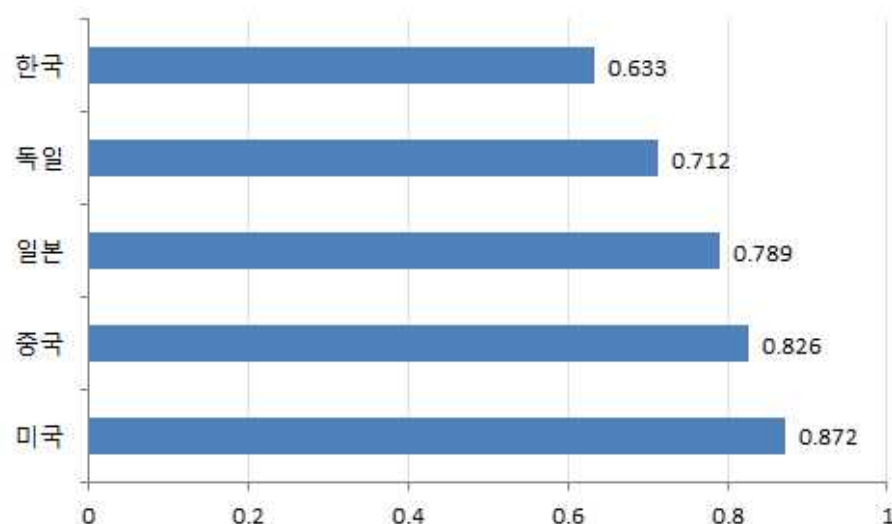
자료 : wiod.org 자료 활용,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재인용

- 국내 총생산에서 수입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13.4%)> 독일(11.9%)> 일본(7.1%) > 미국(4.5%) > 중국(4.3%) 순으로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주요국 대비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38.7%)은 중국(32.5%)보다는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높지만, 수입 중간재 비중도 한국(13.4%)이 중국(4.3%)보다 월등히 높아, 생산을 통한 국내 파급력(국내 중간재 + 국내 부가가치)은 중국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미국 > 중국 > 일본 > 독일 > 한국

- 최종재 수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자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2014년 기준 미국(0.872) > 중국(0.826) > 일본(0.789) > 독일(0.712) > 한국(0.633) 순으로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음.
-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통해 수출입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부가가치 이입과 해외 부가가치 이출을 반영한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므로 기존의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차이 존재
-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낮은 이유는 수입 중간재를 활용해 가공 수출을 하는 전자, 기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향후 수출의 부가가치율을 높이기 위한 소재, 부품 등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간재 국산화 및 최종재의 고부가가치화, 고부가가치 수출품 발굴 필요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자료 : wiod.org 자료 활용,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재인용

## 나. 수출대기업 성과의 중소기업 파급 효과<sup>1)</sup>

### □ 수출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성·수익성 연관 관계 분석

- 한국의 수출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 구조여서 수출의 성과가 대기업 내부에만 축적되고 협력기업 및 내수로 파급되지 못하며, 그 결과 협력기업들의 성과 부진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중간재 개발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옴.
- 실제로 수출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표 수출기업과 협력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통한 분석 시도
  -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산업 대표 대기업과 해당기업의 1차, 2차, 3차 협력업체의 2000~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등을 통해 분석
- 수출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출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성장성은 동조성을 보이는 반면 수익성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성장성 낙수효과, 규모 크지 않지만 1차 하청기업에 가장 큰 영향

- 성장성의 경우, 4개 원청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하청기업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낙수효과를 실증 분석해 보면, 원청기업 매출액 1% 증가시 1차 협력기업의 매출액은 0.43~0.74% 증가하는 등 수출대기업의 성장이 협력업체의 성장에도 작지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원청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1차 하청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영향 감소

#### 원청기업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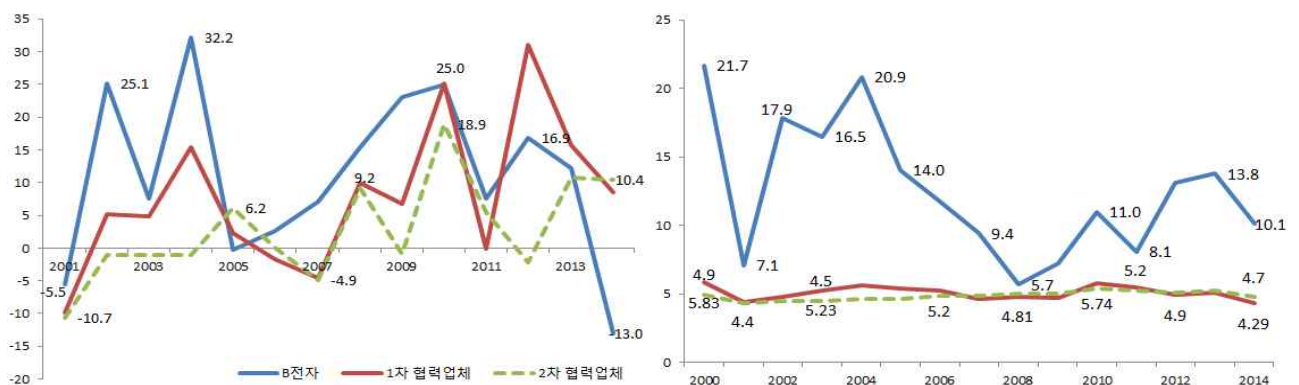
	1차	2차	3차
A자동차	0.43%	0.05%	0.004%
B전자	0.56%	0.07%	0.005%
C중공업	0.74%	0.07%	0.006%
D철강사	0.48%	0.05%	0.005%

1) 본 장은 2016년 당행 및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한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

□ 원청기업 수익성 변동 폭 큰 반면 협력기업은 원청기업 대비 낮은 수익률 일정 유지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등을 통해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과는 달리 원청기업의 수익률은 변동폭이 큰 반면, 협력기업들은 차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평균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 산업의 경우 원청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20% 이상 변동되는 상황에서도 협력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5%대로 일정하게 유지됨.
- 원청기업의 수익성이 하청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낙수 효과를 실증 분석해 보아도, 조선산업(C중공업)과 1차 협력기업의 수익성 간에만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을 뿐, 다른 업종에서는 상위기업들의 수익성이 하위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
- 협력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원청기업의 수익률 변화와 상관없이 3~6%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
- 협력기업의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은 이유는 원청기업이 납품 단가 결정력을 통해 협력기업의 수익성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전략 때문으로 분석되며, 협력기업의 채산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

A전자와 협력업체 매출액 증가율 추이(좌) 및 영업이익률 추이(우)



□ 협력 중소중견기업 성장 제한 · 수출 부가가치율 하락 원인

-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관리 관행, 협력기업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수익성이 낮게 관리되는 탓에 협력 중소중견기업들은 차기 기술 개발 여력이 부족해져, 기술 변화시 협력기업에서 누락, 수출대기업과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
-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들조차 차세대 기술 개발 여력이 떨어짐에 따라 국내 수출에 간접적 기여를 하면서도 성장에 제한을 받고, 국내 수출의 부가가치율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내수 소비 파급력도 떨어지게 됨.
- 국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진 데에는 국내 협력 중소중견기업들의 영세성으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생산 능력이 떨어져 수입 의존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

### 3.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

#### □ 취업유발계수 지속 하락 · 수출 10억원당 8.1명 취업유발

- 수출이 유발하는 취업인원 수는 2014년 기준 611만명으로 민간소비로 유발하는 취업인원 958만명보다는 적고, 투자로 유발하는 취업인원 377만명보다는 많은 수준
- 우리나라에서 취업인원 가운데 비중으로는 수출이 25.9%, 소비가 40.5%, 투자가 16%를 유발시키며 그 외에 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 재고증감, 귀중품 순취득 등 기타 항목으로 17.6%의 취업인원이 유발됨.
- 정부소비지출 등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 소비, 투자, 수출만의 비중으로 비교한다면 소비 49.2%, 투자 19.4%, 수출 31.4%로, 국내총생산 내에서 차지하는 소비 45.1%, 투자 20.2%, 수출 34.7% 비중과 차이 발생
- 소비는 국내총생산 비중보다 취업인원을 더 많이 유발시키고 투자와 수출은 국내총생산 비중보다 취업 유발인원이 낮음. (2014년 기준)
- 각 분야의 국내총생산 비중과 취업유발인원 비중이 상이한 까닭은 각 분야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취업이 유발되는 산업 및 유발 인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
- 수출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취업이 유발되는 산업은 장비 집약, 기술 집약적인 분야가 많아 소비에 의해 취업이 유발되는 산업에 비해 취업 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취업 유발계수도 낮게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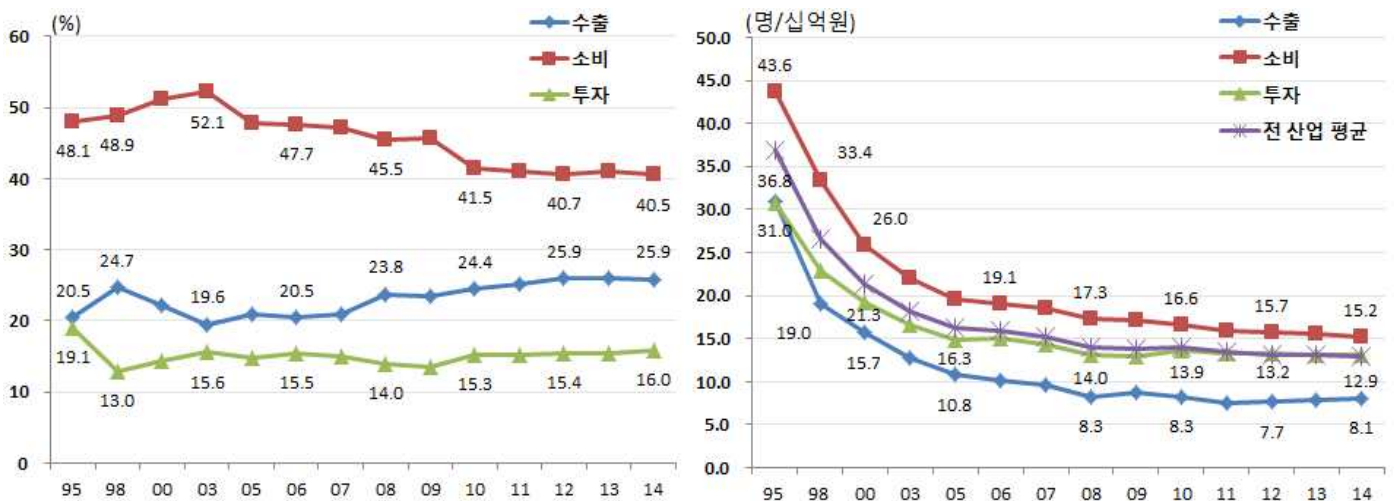


## 소비·투자·수출의 취업유발 관련지표

		95	98	00	03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수출	31.0	19.0	15.7	12.7	10.8	10.1	9.6	8.3	8.7	8.3	7.5	7.7	7.8	8.1
	소비	43.6	33.4	26.0	22.0	19.6	19.1	18.5	17.3	17.2	16.6	15.9	15.7	15.5	15.2
	투자	30.8	23.0	19.2	16.7	14.9	15.0	14.3	13.2	13.0	13.6	13.3	13.4	13.1	13.1
	평균	36.8	26.6	21.3	18.1	16.3	15.9	15.3	14.0	13.8	13.9	13.4	13.2	13.1	12.9
취업유발인원 (만명)	수출	352	401	371	346	370	370	395	457	465	525	563	598	607	611
	소비	827	794	853	921	840	861	885	875	900	891	915	939	954	958
	투자	328	211	241	275	263	280	284	269	266	328	340	356	358	377
	기타	212	219	203	224	288	295	313	320	342	403	410	414	406	417
취업유발구성비 (%)	수출	20.5	24.7	22.3	19.6	21.0	20.5	21.1	23.8	23.6	24.4	25.3	25.9	26.1	25.9
	소비	48.1	48.9	51.2	52.1	47.7	47.7	47.1	45.5	45.6	41.5	41.1	40.7	41.0	40.5
	투자	19.1	13.0	14.4	15.6	14.9	15.5	15.1	14.0	13.5	15.3	15.3	15.4	15.4	16.0
	기타	12.3	13.5	12.1	12.7	16.4	16.3	16.7	16.7	17.3	18.8	18.4	17.9	17.5	17.6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인원표로 재구성  
 주: 최종수요항목 중 민간소비지출을 소비로, 민간고정자본형성을 투자로, 그 외 항목(정부소지비출,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은 기타로 집계

소비·투자·수출의 취업유발인원 구성비(左) 및 취업유발계수(右)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인원표로 재구성

- 이에 따라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수출 10억원당 8.1명으로, 소비의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15.2명, 투자의 취업유발계수 13.1명 및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 12.9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수출·투자가 유발하는 일자리 수는 낮지만 고용의 질은 더 우수

- 소비, 투자, 수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취업이 유발되는 산업을 비교해 보면 고용의 질도 다소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음.
- 소비의 경우 도소매 서비스(15.5%), 문화 및 기타서비스(12.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1.4%), 농림수산물(11.2%), 교육서비스(9.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6.7%) 등 주로 서비스 분야에서 취업이 유발
- 투자의 경우는 건설(3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19.0%)의 유발 비율이 높고 도소매서비스(12.3%),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4.7%)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업이 많이 유발
- 마지막으로 수출의 경우는 도소매 서비스(18.7%), 운송서비스(12.6%), 전기 및 전자기기(7.4%), 사업지원서비스(7.1%), 운송장비(5.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5.3%) 등에서 취업이 많이 유발됨.
- 산업 가운데 도소매서비스의 분야의 취업 유발 효과가 높아 소비, 수출, 투자 모두 이 분야 취업 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도소매 서비스를 제외하고 살펴 보면,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날 때에는 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분야의 취업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 투자와 수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에는 전자,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 및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됨.
- 각 산업별 평균 임금 수준을 반영해 비교해 보아도 소비에서 유발되는 취업의 월평균 급여는 261만원(연평균 3,132만원)으로 전체 취업유발 인원 월평균 급여 282만원(연평균 3,276만원)보다 낮은 수준
  - 소비, 투자, 수출에서 유발되는 취업의 월평균 급여를 각 분야 내에서 유발되는 산업 비율을 반영해 평균 산출
- 반면 수출의 경우 월평균 급여 278만원(연평균 3,336만원), 투자의 경우 월평균 급여 296만원(연평균 3,552만원)의 취업이 유발돼, 각각 소비보다 6.5%, 13.4% 높은 임금이 취업이 유발되고 있어 유발되는 고용의 질은 더 우수

소비·투자·수출의 취업유발인원 산업별 분포

산업	월평균급여	소비		투자		수출	
	(만원)	인원 (천명)	구성비	인원 (천명)	구성비	인원 (천명)	구성비
농림수산물	267	1,075	11.2%	63	1.7%	204	3.3%
광산품	332	1	0.0%	6	0.2%	5	0.1%
음식료품	270	246	2.6%	10	0.3%	58	0.9%
섬유 및 가죽제품	233	97	1.0%	13	0.3%	202	3.3%
목재 및 종이, 인쇄	257	61	0.6%	33	0.9%	78	1.3%
석탄 및 석유제품	366	3	0.0%	1	0.0%	8	0.1%
화학제품	314	63	0.7%	33	0.9%	254	4.2%
비금속광물제품	276	7	0.1%	46	1.2%	30	0.5%
1차 금속제품	283	12	0.1%	35	0.9%	126	2.1%
금속제품	267	28	0.3%	70	1.9%	130	2.1%
기계 및 장비	294	30	0.3%	114	3.0%	248	4.1%
전기 및 전자기기	360	56	0.6%	51	1.3%	466	7.6%
정밀기기	294	14	0.1%	16	0.4%	59	1.0%
운송장비	298	66	0.7%	54	1.4%	360	5.9%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38	99	1.0%	66	1.7%	248	4.1%
전력, 가스 및 증기	433	39	0.4%	8	0.2%	24	0.4%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341	50	0.5%	11	0.3%	33	0.5%
건설	290	41	0.4%	1,182	31.3%	17	0.3%
도소매서비스	266	1,484	15.5%	462	12.3%	1,141	18.7%
운송서비스	260	490	5.1%	141	3.7%	771	12.6%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80	1,089	11.4%	110	2.9%	359	5.9%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41	296	3.1%	179	4.7%	136	2.2%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86	485	5.1%	70	1.9%	141	2.3%
부동산 및 임대	207	455	4.7%	50	1.3%	56	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365	171	1.8%	717	19.0%	321	5.3%
사업지원서비스	234	425	4.4%	126	3.3%	433	7.1%
공공행정 및 국방	282	36	0.4%	10	0.3%	16	0.3%
교육서비스	311	874	9.1%	2	0.1%	11	0.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32	641	6.7%	20	0.5%	30	0.5%
문화 및 기타 서비스	231	1,147	12.0%	73	1.9%	148	2.4%
취업유발인원 합		9,580	100.0%	3,772	100.0%	6,113	100.0%
구성비(%)			41		16		26
유발계수(명/10억원)	12.9		15.23		13.15		8.13
유발임금계수(만원)	273		261		296		278
연환산 급여(만원)	3,276		3,132		3,552		3,336

자료: 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인원표로 재구성

주1: 최종수요항목 중 민간소비지출을 소비로, 민간고정자본형성을 투자로 집계, 그 외

항목(정부소지비출,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은 제외

주2: 산업별 월평균급여액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별 통계(2015년)에서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연결하되 품목이 갈라지는 경우 중분류 관련산업 평균으로 사용

- 또한 소비로 취업이 유발되는 서비스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규모로 볼 때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수출과 투자로 취업이 유발되는 산업은 내수 시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자리 증가가 가능하다는 차이도 존재
- 즉, 수출과 투자가 소비에 비해서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아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는 제한적이지만, 창출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도 높아 고용의 질은 더 우수하며 증가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4. 소결

##### □ 고부가 중간재 수입 의존도 높아 수입 유발도 높고 부가가치 유발도 낮은 한국 수출 구조

-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내수 중심 성장으로 전환해야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그러나 수출과 내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 하락 → 투자 하락 → 내수 감소 → 국내 총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출이 저조한 상태에서는 내수 증진이 쉽지 않음.
- 한편, 수출의 양적 성장은 지속되었으나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저조
  - 수출의 수입 유발계수는 2014년 0.424 수준으로 수출이 1000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액이 424원이라는 의미로, 수출액이 증가해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수입에 지출하고 있는 구조
- 이에 따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2014년 기준 미국(0.872) > 중국(0.826) > 일본(0.789) > 독일(0.712) > 한국(0.633) 순으로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음.
  - 수입 중간재를 활용해 가공 수출을 하는 전자, 기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
- 특히,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관리 관행, 협력기업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도 하락 추세
  - 협력 기업들의 성과 부진은 다시 고부가가치 중간재 기술 개발 여력 하락으로 연결돼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입 의존도 상승으로 귀결됨.

□ 수출의 취업유발도는 낮지만 창출되는 고용의 질은 더 우수

-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수출 10억원당 8.1명으로, 소비의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15.2명, 투자의 취업유발계수 13.1명 및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 12.9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수출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취업이 유발되는 산업은 장비 집약적이거나 기술 집약적인 분야가 많아 소비에 의해 취업이 유발되는 산업에 비해 취업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취업 유발계수도 낮게 집계됨.
- 수출과 투자가 소비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낮아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는 제한적이지만, 창출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높아 고용의 질은 더 우수하며 증가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날 때에는 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분야의 취업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 투자와 수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에는 전자,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 및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됨.
  - 월평균 급여로 비교시 수출로 월평균 급여 278만원의 일자리가, 투자로는 월평균 급여 296만원의 일자리가 유발돼, 소비가 유발시키는 월평균 급여 261만원의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에 비해 고용의 질은 더 우수
- 따라서 현재 한국 수출 구조에서는 중소기업들과의 협력 제고를 통한 중간재 국산화 및 최종재의 고부가가치화, 고부가가치 수출품 발굴 등으로 수출의 부가가치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용 유발을 더 높일 수 있는 수출 구조로 개선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늘려가는 등 수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한국 수출구조의 특성

		현 상	원 인
한국 수출 구조 특성		수출의 수입 유발도 ↑ : 수입유발계수 0.424, 2016년 순수출 성장기여도(-0.5)	- 고부가가치 수입 중간재 의존도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도 ↓ : 미국(0.87)>중국(0.83)>일본(0.79)> 독일(0.71) > 한국(0.63)	- 수출대기업과 부품기업의 협력 약화 → 국내 협력기업들의 기술개발 여력 상실
		수출의 고용 유발도 ↓ : 수출 10억원당 8.1명 취업유발 고용 질은 상대적 우수	- 수출은 장비집약산업에서 취업 유발 - 유발 인원 작으나 임금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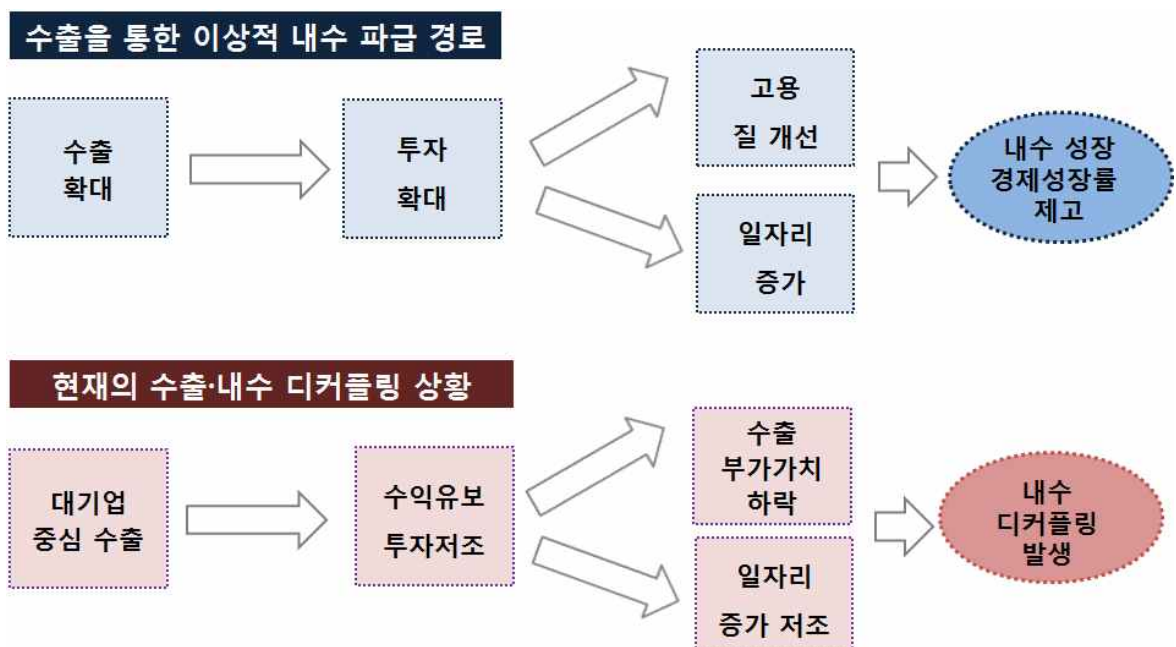
## IV. 수출의 질 개선 방향

### 1.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 개선 방향

#### □ 대기업 중심 수출 개선 및 투자 확대·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 질 제고

-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호황기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 현상이 다시 부각
-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 현상은 우리 수출 구조의 일부 한계점으로 인해 수출의 내수 파급 경로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출이 확대되면 투자 확대 및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증가하며, 특히 수출과 투자가 견인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 내수 성장이 견인되고 경제성장률도 제고되어야 함.
- 그런데 현재 상황은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중간재 투자는 미흡하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도는 떨어져, 수출 대기업의 수익은 내부에 유보되고 있지만 수출의 수입 유발도는 높아지고 부가가치 유발도는 하락해 수출 성과의 내수 파급력이 약화됨.
- 특히 현재 대기업 중심 수출의 산업 포트폴리오상 기계화 생산 체제를 위한 투자가 자리잡아 일자리 증가도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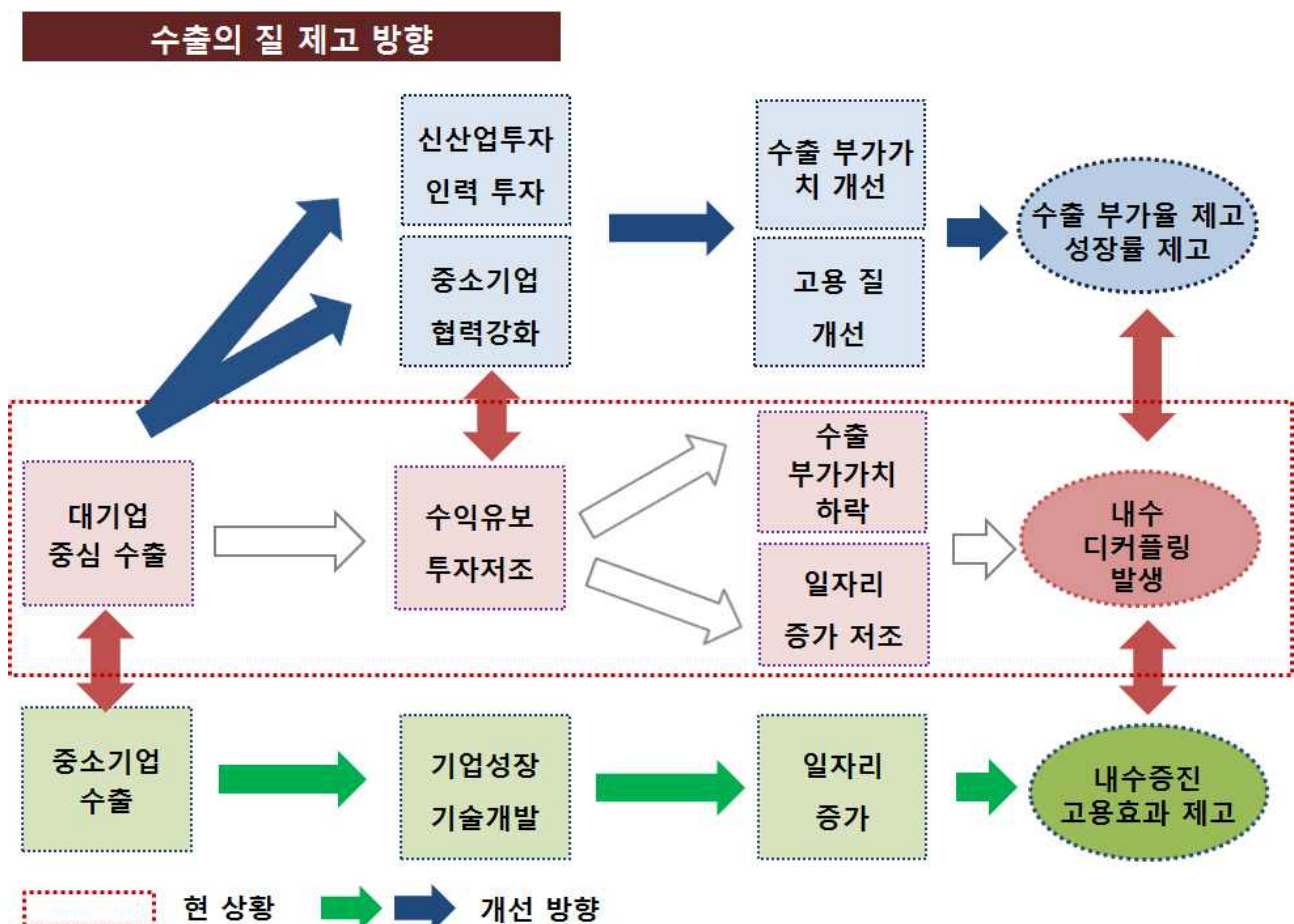
#### 수출 성과의 내수 파급 경로





- 따라서 현재 필요한 논의는 수출 성과의 내수 파급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막연히 수출 대신 내수 위주로 성장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출 구조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수출의 성장 견인력을 복원시키는 것
- 민간 소비 중심의 내수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에서 규모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어려우며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즉, 이제까지의 수출 전략이 수출의 양을 늘려 성장을 견인하는 것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수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 국내 경제 파급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출의 성장 견인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수출 구조의 문제점을 크게 대기업 중심 수출에서 파생되는 투자 저조, 중소기업 협력 약화, 고용 유발력 약화, 부가가치율 하락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출의 부가가치 개선과 고용효과 개선의 측면에서 제안해 보고자 함.

### 수출의 질 제고 방향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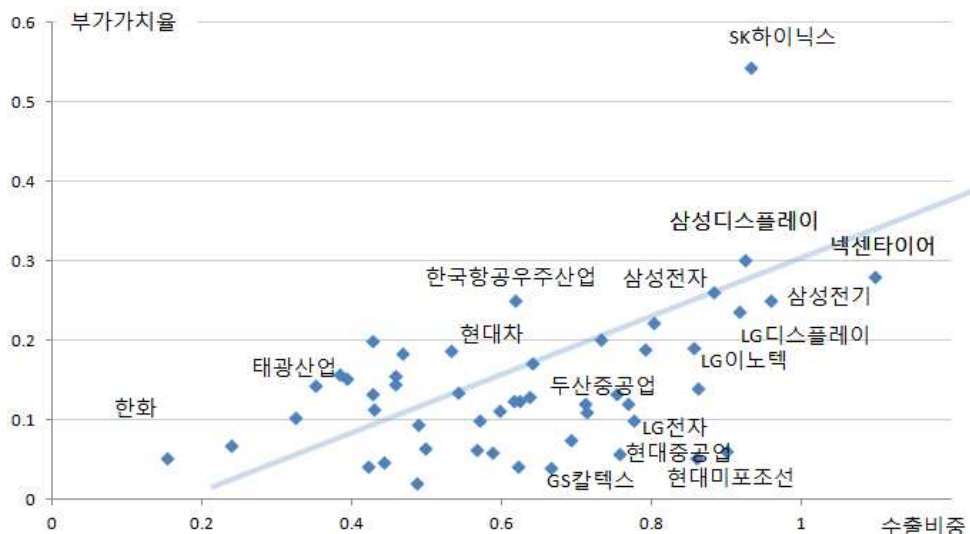
## 2. 수출의 부가가치 개선

### 가. 수출 대기업 협력 강화 통한 부가가치 개선

#### □ 수출 대기업의 높은 내부유보금 활용해 하청기업과 협력 강화·부가가치 개선

- 우리 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에는 낮은 상황이지만 수출 상위 50대 기업들의 2011~2015년 평균 수출 비중과 매출액 대비 수익률 분포를 분석해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부가가치 기준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 기준 수익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의 부가가치 산식과 같이 '영업잉여(영업손익+대손상각비-금융비용) + 인건비 + 감가상각비 + 금융비용'으로 정의

50대 수출기업의 수출 비중과 수익률 분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출기업 부가가치 구성 및 고용·투자 분석”

- 즉,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낮더라도 수출 주도 대기업이 획득하는 부가가치 기준 수익은 높은 수준이며, 이렇게 창출된 수익이 내수로 파급되지 못하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고 있는 것이 문제
- 실제로 수출 대기업들이 거둔 수익이 내부에 유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0대 수출기업의 수익 중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영업잉여액과 감가상각비 등의 내부자금 가능재원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110조원(영업잉여 55.4조원, 감가상각비 54.8조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2015년 기준)

- 이렇게 발생한 내부자금 재원 중 주주 배당에 8조원, 투자에 78.5조원이 집행되었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49.3조원이 기업에 유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50대 수출기업 자금 흐름도 (2015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출기업 부가가치 구성 및 고용·투자 분석”  
 주: 수출액은 2011~2015년 평균 수치 적용

-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배당과 투자를 높이는 효과는 거두었으나, 임금총액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냈으며, 여전히 내부자금 여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사업연도 당기소득의 80%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으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미환류 소득’으로 정의해 법인세 10%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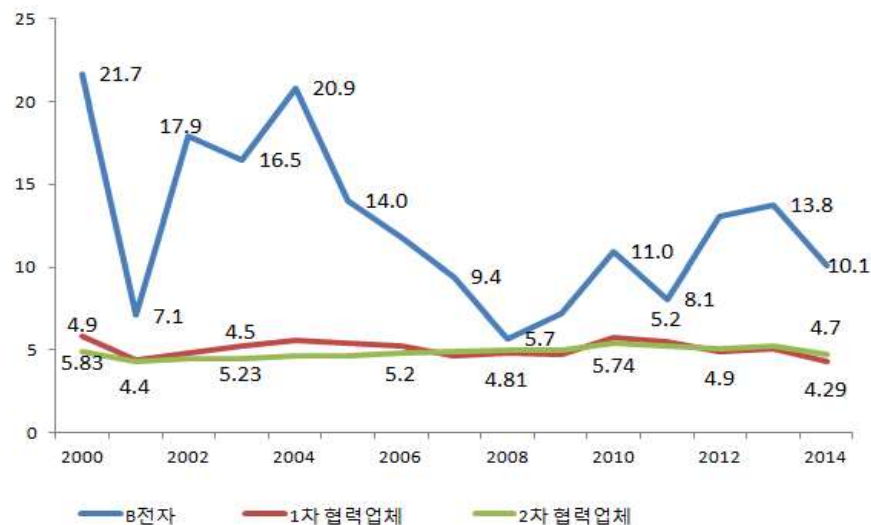
- 2011년 이후 연평균 8.8% 증가해 오던 배당금 총액이 2015년 전년대비 25.0% 증가했고, 연평균 5.8% 증가해 오던 투자액도 전년대비 32.5% 증가해 기업소득을 배당과 투자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연평균 6.4%로 증가해 오던 임금총액은 전년대비 3.0%만 증가

□ 협력기업 기술 개발 여력 하락 지속시 수출 최종재 제품력도 개선 한계

- 수출 대기업의 내부 자금 여력이 높은 까닭은 높은 영업잉여액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높은 영업잉여액을 거두기 위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적정마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
- 앞선 장 '4. 수출 대기업 성과의 중소기업 파급효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수출 업황 등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반면, 이들에게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됨.

수출대기업 B전자와 협력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 협력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이와 같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은 원청 수출대기업이 협력 기업들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
- 이와 같이 원청기업이 협력기업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나라 하도급 기업들 간에 경쟁이 심화되어 원청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지 않고도 협력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협상력 격차로 원청 대기업이 일시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둘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낮은 마진으로 협력 기업들의 기술 개발 여력이 떨어져 부품 공급 능력 하락을 초래해 수출 대기업의 제품력 개선에도 한계 발생

- 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은 계속 외산에 의존하고 국내에서 개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내 수출의 부가가치를 개선도 어렵고, 협력 중소기업들의 성장도 원활하지 못하게 됨.
- 따라서 수출의 부가가치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 대기업들이 부품 기업들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부품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여력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 수입 부품을 대체해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 나. 선진국형 기술 체제 전환 통한 부가가치 개선

### □ 추격형 기술 체제에서 선진국형 기술 체제로 전환 중인 우리나라

- 산업 주도권이 선발기업에서 후발기업에게로 이전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Perez and Soete(1988)는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이란 개념을 제시
- ‘기회의 창’이란 특정 산업 내에서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넘어설 수 있는 비약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를 뜻하는 개념으로, Lee, Park and Krishnan(2014)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음을 정리하며 대표적 산업을 예시
  - 1) 새로운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 : 1990년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기에 나타난 일본-한국의 주도권 변화
  - 2) 경기순환이나 시장 수요의 변화 : 불황기에 나타난 반도체 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에서의 주도권 변화
  - 3) 정부가 다양한 규제와 후발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선발자와 후발자에게 비대칭적 환경 조성 : 중국 통신산업, 인도 제약산업의 발전 과정
- 이근 등(2014)은 이러한 ‘기회의 창’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각 기업이 각자의 산업별 기술 체제 등에 맞춰 활용할 때 추격 또는 추월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 수출 산업들도 이러한 기회의 창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추격과 추월을 해왔음을 정리
-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만과 같은 대표적 추격 성공 국가에서는 주로 반도체, 통신장비, 디지털 TV 등 기술 수명이 짧은 ‘단명 기술 분야’를 집중 특화해 성장한 특징을 나타냄.

- 수명이 짧을수록 선진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 기술의 유용성이 금방 하락해 기존 기술 의존도도 낮고, 계속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도 높기 때문
- 반면 남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명이 긴 제약, 바이오 등과 같은 산업을 진흥하려 했으나 경제 성장에 성공하지 못함
- 그런데 Lee(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일수록 의학, 생명과학, 소재, 기계 등 수명이 긴 기술에 특허가 많은 것이 경제 성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 생산의 토착화 정도가 높을수록 성장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추격 단계에서는 기술 수명이 짧은 산업 위주로 추격을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추격을 완성한 시점에서는 수명이 긴 기술에서 특허를 많이 내고 지식 생산의 토착화도 높이는 형태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
- 우리나라 산업 기술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기술 전환이 이미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아래 그림 ‘한국 산업기술의 평균 수명과 기술 전환점’의 좌측은 특허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한 산업의 평균 기술 수명으로, 이 숫자가 10이면 평균 10년 정도의 오래된 특허를 인용해 지식을 생산하고, 이 숫자가 5이면 평균 5년 정도의 새로운 특허를 인용해 지식을 생산함을 나타냄.

한국 산업기술의 평균 수명과 기술 전환점



자료: Lee(2013), 『산업의 추격, 추월, 추락(이근 외, 2014)』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평균 수명이 짧은 기술 위주로 발전을 해오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다시 수명이 긴 기술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줌.
- 즉, 80년대 이후 기술 주기가 짧은 산업들을 특화해 추격에 성과를 거두었고, 다시 2000년대 이후 기술 수명이 긴 부품소재, 바이오 의약 분야 등으로 진입해 선진국형 지식 생산 체제로 변모하려고 하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
- 기술 수명이 짧은 분야는 우리가 추격을 하기에 손쉽지만 또다른 후발자가 쉽게 추격을 해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환은 우리 기술 체제에서 필요한 단계
- 그러나 기술 수명이 긴 산업들의 경우 암묵지가 높고, 이미 선발기업들이 축적해 놓은 기술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 선진국형 기술 전환 위해 M&A 등 통한 지식 축적 체제 정비 필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 등은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기업과 M&A 및 협력 등을 통해 제약산업, 기술산업의 R&D 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둠.
- 기술 추격 초반에는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해 자체 개발 능력을 축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숙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서로 필요한 자산과 지식을 수평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필요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
- 휴대폰, 디지털 TV 등의 발전 과정에서도 우리의 하드웨어 양산 기술과 선진국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이 서로 보완돼 성공을 거두었듯이, 필요 기술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을 M&A함으로써 기술을 토착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
-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수출 대기업들도 실패 위험 때문에 내부에 자금을 유보하고도 신기술 투자를 지연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M&A, 협력 연구 등 '결합을 통한 지식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개발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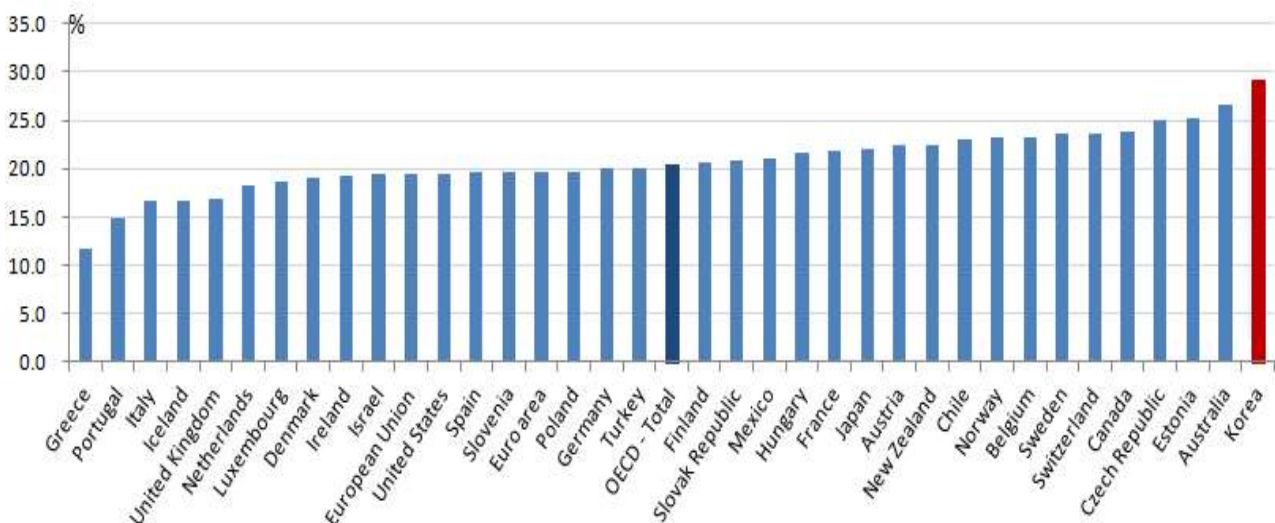
### 3. 수출의 고용효과 개선

#### 가. 투자 전략 변화 통한 고용효과 개선

□ 자동화 중심 설비 투자로 자본장 비율은 높였으나 고용률은 하락

- 수출 성과가 내수로 파급되는 과정에는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질 높은 고용이 창출되어 수출의 국민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됨.
- 그런데 우리 수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은 OECD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수출이 투자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주장할 수 없는 상황
- 50대 수출기업의 투자액이 제조업 업체들의 총고정자본 형성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44.0%('11)→45.6%('12)→47.9%('13)→43.2%('14)로, 50대 수출기업의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제조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43.1%('11)→42.4%('12)→44.8%('13)→39.9%('14)과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
  - 국민 경제에서 50대 수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할 때 투자활동이 오히려 제조업 대비 소폭 높다는 의미
- 우리나라의 총투자율(=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역시 32.9%('11)→30.8%('12)→ 29.0%('13)→ 29.3%('14)→ 28.5%('15)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어서 투자의 규모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

OECD 국가 총투자율 비교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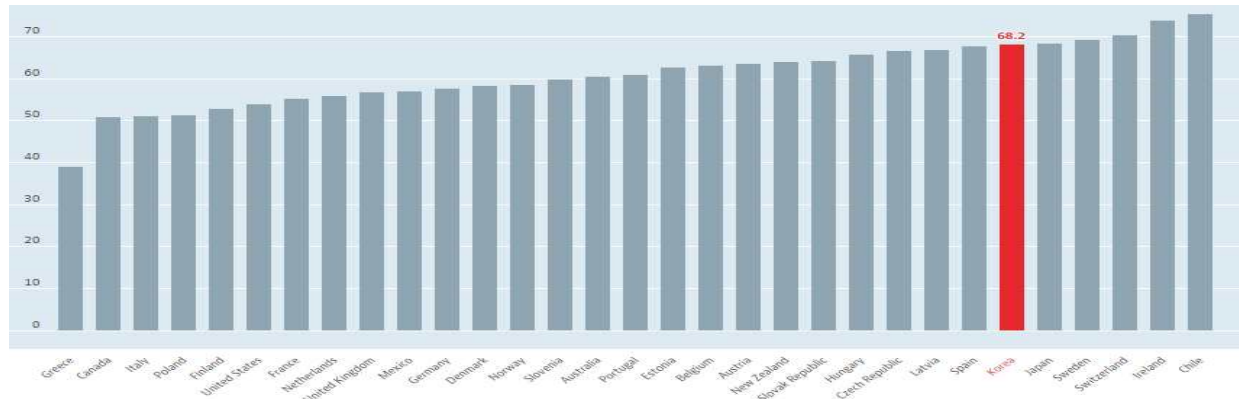


자료 : OECD(2016.6),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특히 우리나라 총투자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8.2%로 OECD 회원국 내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국민 경제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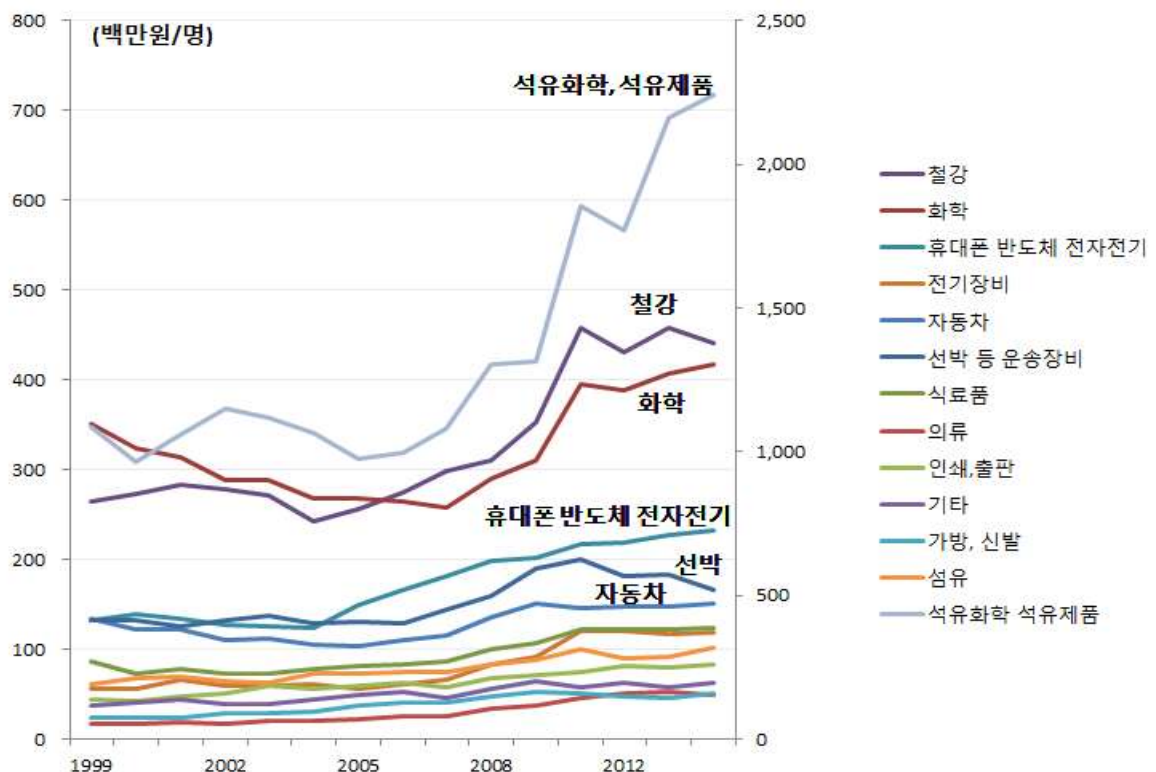
OECD 국가별 투자 중 기업 비중(%)



자료: OECD, Investment(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by sector(2012)

- 그런데, 수출 기업들의 투자율이 높은 데도 고용 유발 효과 등이 높지 않은 까닭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 포트폴리오상 장치산업 비중이 월등히 높고, 설비 투자 중심이어서 고용 유발률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투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

우리나라 주요산업 1인당 자본장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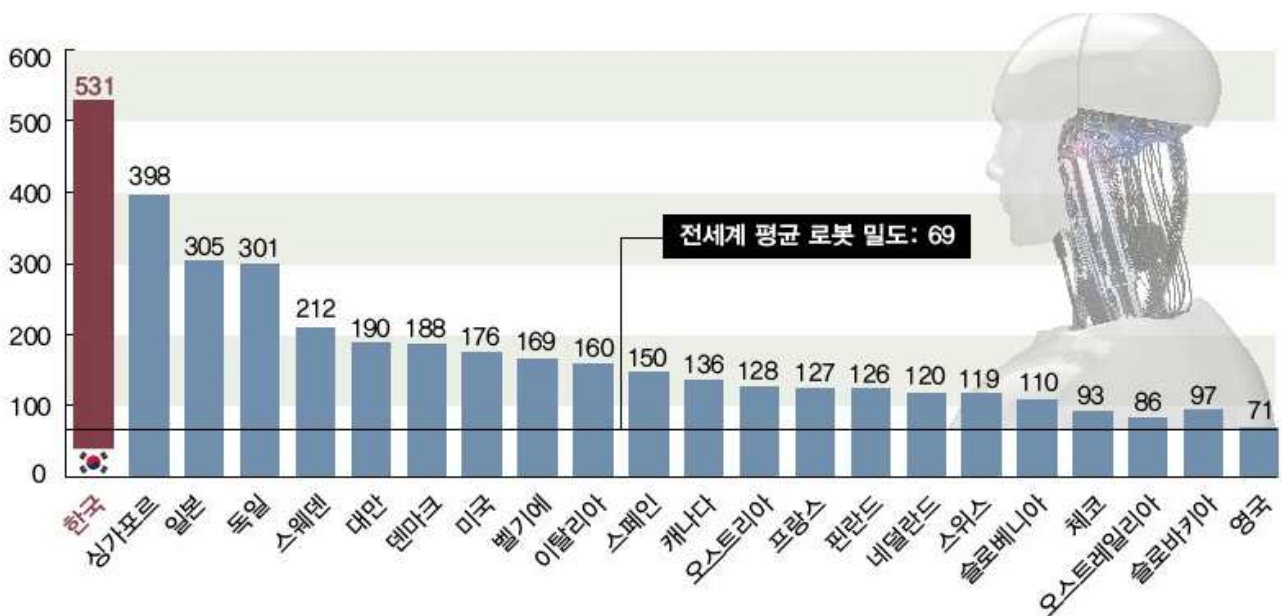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주: 자본장비율(백만원/명) = 유형자산/종사자수, 석유화학·석유제품만 우측, 나머지는 좌측

- 위 그래프에서와 같이 노동자 1명당 투입되는 자본 사용량을 나타내는 '1인당 자본장 비율'을 산업별로 비교해 보면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의 자본장 비율이 크게 증가
  - 석유화학·석유제품(22.4억원/명), 철강(4.4억원/명), 화학(4.2억원/명), 휴대폰·반도체 등 전자부품(2.3억원/명), 선박 등 운송장비(1.7억원/명), 자동차(1.5억원/명) 등 주요 수출산업의 자본장 비율이 타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특히 이와 같이 자본장 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설비 투자시 생산 자동화를 위한 산업용 로봇 등의 도입률이 높아 자본 투자로 인한 생산성은 향상시켰으나, 고용 유발률은 높이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냄.
- 그 결과,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도입수가 531대로 싱가포르(398대), 일본(305대), 독일(301대) 등을 제치고 주요 조사대상국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2015년 보스턴컨설팅 그룹도 한국이 현재 로봇 채택에 세계 최선두 그룹으로 2025년에는 제조업 노동력의 40%를 로봇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



자료: 세계로봇연맹(IFR, 2016), 한겨레 신문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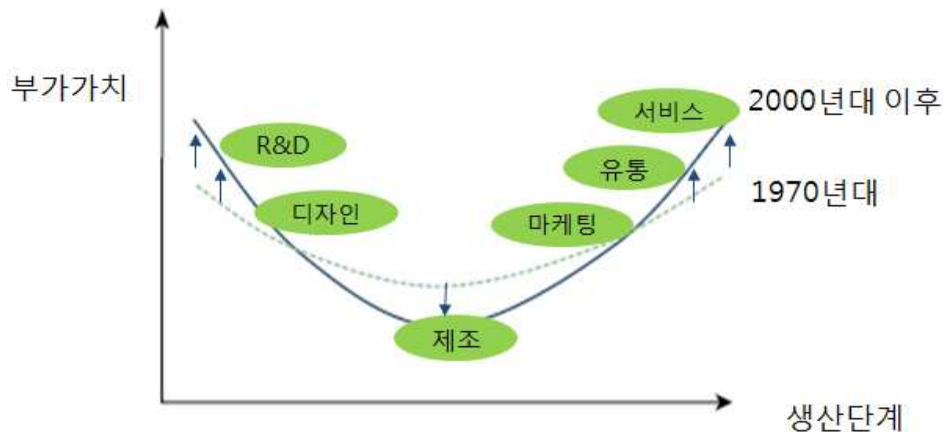
#### □ 단순 자동화에서 신사업 발굴·인력개발 중심 투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장치산업 중심 수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수출 증가를 통해 투자를 견인한다 해도 기존의 자동화 위주 투자로는 국민 경제 파급효과를 개선하기 어려우며,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한

계에 직면할 가능성

- 단순히 설비 자동화에서 탈피해 가치사슬상 고부가가치 영역인 R&D, 마케팅 등의 영역으로 투자 중심축을 전환해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 획득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에는 없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 효과 개선**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상 부가가치 스마일 커브>



자료: WTO

- 아울러 **신산업 창출 및 이에 대응하는 인력 개발**을 동반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수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 전환이 필요
  - 컴퓨터의 확대로 저임금 직종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컴퓨터를 활용하는 고임금 일자리는 더 늘어났다거나, 미국에서 자동입출금기가 은행 창구직원을 대체했지만 신규 업무를 확대해 은행 직원이 더 늘어난 것과 같은 고용 확대 전략 필요
- 정부가 기업의 투자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때에도 단순한 설비 투자가 아니라 **인력 투자가 견인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수출 및 투자 증가를 통한 **질 높은 일자리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

## 나. 중소기업 수출화를 통한 고용효과 개선

□ 대기업 수출 지원 역할 수행으로 '수출화'에서 벗어나 있던 중소기업

- 1970년대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이 선택되었고,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원활한 부품 공급이 필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의 수직적 계열화가 추진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생산해 수출하는 형태의 성장 전략이 자리잡아 중소기업의 수출은 주요 과제에서 벗어나 있었음.
- 이런 영향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및 글로벌화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수출 비중은 크게 하회
- 2010년 이후 중소 제조업(종사자 5~299인 기준)의 생산액 비중은 45~5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대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해도 30%대 중반 수준을 유지

#### 기업규모별 GDP 및 비중

단위: 천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13,860	15,601	15,682	15,538	15,484
중소기업 (%)	6,514 (47.0)	7,264 (46.6)	7,172 (45.7)	7,399 (47.6)	7,482 (48.3)
대기업 (중견 포함, %)	7,346 (53.0)	8,336 (53.4)	8,510 (54.3)	8,140 (52.4)	8,002 (51.7)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생산액 기준(중소기업은 5~299인 중소제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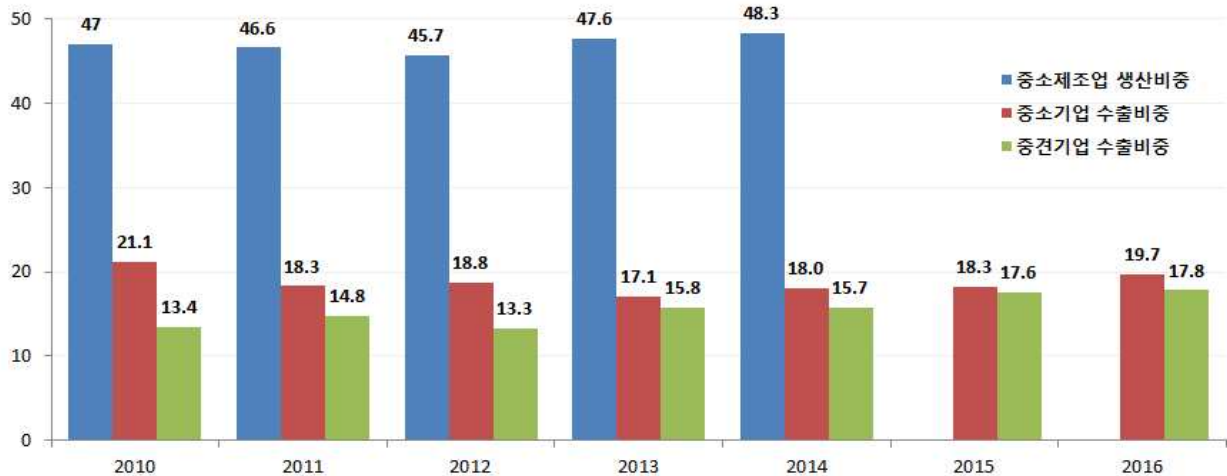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수출액 및 기여도

단위: 억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중소기업 (%)	986.2 (21.1)	1,015.6 (18.3)	1,028.7 (18.8)	954.9 (17.1)	1,032.9 (18.0)	962.3 (18.3)	886.1 (19.7)
중견기업 (%)	626.3 (13.4)	818.9 (14.8)	728.3 (13.3)	882.5 (15.8)	901.0 (15.7)	928.5 (17.6)	801.6 (17.8)
중소중견 합계(%)	1,612.5 (34.6)	1,834.5 (33.0)	1,757.0 (32.1)	1,837.4 (32.8)	1,933.9 (33.8)	1,890.8 (35.9)	1,687.7 (37.5)
대기업/ 기타	3,051.3 (65.4)	3,717.6 (67.0)	3,721.7 (67.9)	3,759.0 (67.2)	3,792.7 (66.2)	3,376.8 (64.1)	2,812.9 (62.5)
합 계	4,663.8 (100)	5,552.1 (100)	5,478.7 (100)	5,596.3 (100)	5,726.6 (100)	5,267.6 (100)	4,500.6 (100)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통계

## 중소기업 생산 비중 및 수출 비중



자료 : 통계청, 중소기업청

주: 생산비중은 5~299인 중소기업 기준

### □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수출화' 필요

- 과거의 성장 전략에서는 대기업 수출이 증가하면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면서 기업의 성장도 견인된다는 '낙수효과'가 중요하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중소기업들간의 경쟁 심화, 대기업과의 역학 관계 등으로 이러한 효과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 따라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자체의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성장 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과거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동하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화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 성장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음.
-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글로벌화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분석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기업의 자원기반적 관점(Resource Based Perspective)'에 기반하여 기업이 글로벌 활동을 통해 내부 역량의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 토대를 마련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
- 기업의 글로벌화 활동은 수출과 같은 외향적 글로벌화, 수입과 같은 내향적 글로벌화, 공동 연구·개발 등과 같은 협력적 글로벌화 등으로 분류되며 세 가지 형태의 글로벌화 모두 기업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줌.

- 특히 이 가운데 수출과 같은 기업의 외향적 글로벌 활동은 기업 및 국가에 모두 장기적인 경쟁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Ruzzier, Hsirich & Antoncic, 2006)한데,
- 기업 차원에서 수출은 기업의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에 모두 이점을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 및 역량 활용, 지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 및 생존을 위한 핵심요인이 되며,
- 국가 차원에서 수출은 기업의 성과 개선을 통해 고용 수준을 향상시키고 외화를 획득해, 사회 후생을 향상시키는 외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 □ 중소기업 수출화를 통해 기업 성장 발판 마련 · 고용 효과 제고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 시장이 성장 한계를 노출하거나, 시장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같은 글로벌화 활동이 필수적
- 과거 한국의 대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한 것과는 달리, 최근의 중소기업들은 수출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분석 가능
- 또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신규 고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미 생산성을 최고조로 향상시켜 고용 유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수출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높은 고용 유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아래 표 ‘대·중소기업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비교’에서와 같이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유발계수는 대기업 5.5, 중소기업 9.7로 중소기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돼,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경우 고용 효과는 더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대·중소기업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비교

단위: 명/십억원

	대기업(A)	중소기업(B)	편차(A-B)
제조업	5.5	9.7	-4.2
소비재	12.7	15.0	-2.3
기초소재	3.8	7.0	-3.2
조립가공	5.9	8.9	-3

자료: 산업연구원 ‘2013년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과 분석’

주: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 2013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작성됨.



## V. 결론 및 시사점

-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수출에 의해서 촉진되는 성향이 있으며, 수출과 내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 하락 → 투자 하락 → 내수 감소 → 국내 총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단순히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출 대신 내수 위주로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수출의 성장 견인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

한국 수출구조의 특성

		현 상	원 인
한국 수출 구조 특성		수출의 수입 유발도 ↑ : 수입유발계수 0.424, 순수출 성장기여도(-0.5)	- 고부가가치 수입 중간재 의존도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도 ↓ : 미국(0.87)>중국(0.83)>일본(0.79)> 독일(0.71) > 한국(0.63)	- 수출대기업과 부품기업의 협력 약화 → 국내 협력기업들의 기술개발 여력 상실
		수출의 고용 유발도 ↓ : 수출 10억원당 8.1명 취업유발 고용 질은 상대적 우수	- 수출은 장비집약산업에서 취업 유발 - 유발 인원 작으나 임금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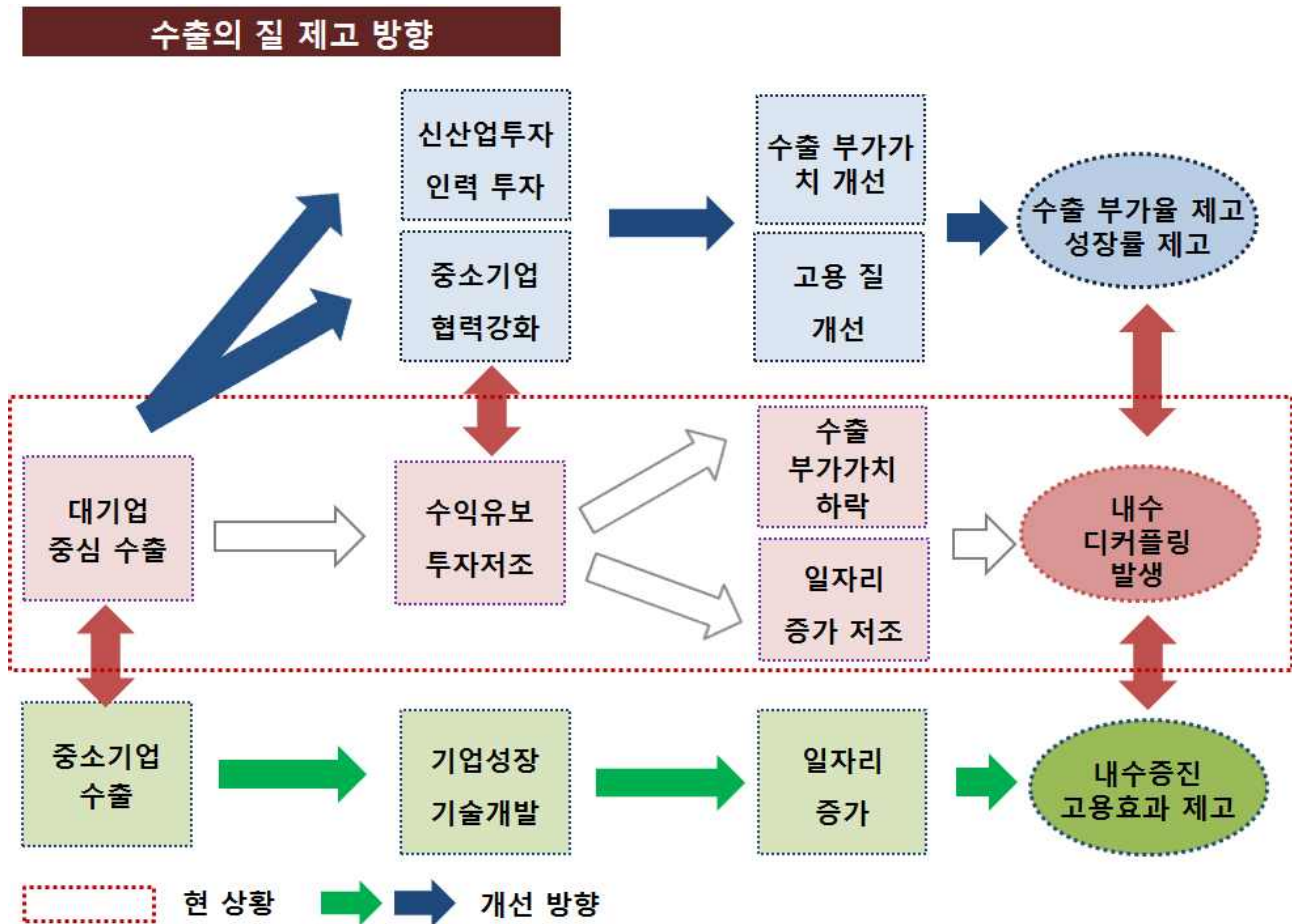
- 과거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온 과거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대기업 중심 수출에서 파생되는 높은 수입 중간재 의존도, 고용 유발력 약화, 부가가치율 하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수출의 질적 개선이 필요
- 수출의 부가가치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 대기업의 높은 내부유보금을 활용해 하청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간재 고부가가치화를 향상시키며, 선진국형 기술 체제 전환을 위해 M&A 등을 통한 지식 축적 체제 정비
- 수출의 고용효과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자동화 중심 설비투자에서 신사업 발굴, 인력개발 중심 투자 전략으로 전환해 새로운 수출 환경



에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추구

- 또한 이미 고도의 생산성 확보로 취업 유발률이 떨어지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취업 유발률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수출화'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효과 제고 추진

### 수출의 질 제고 방향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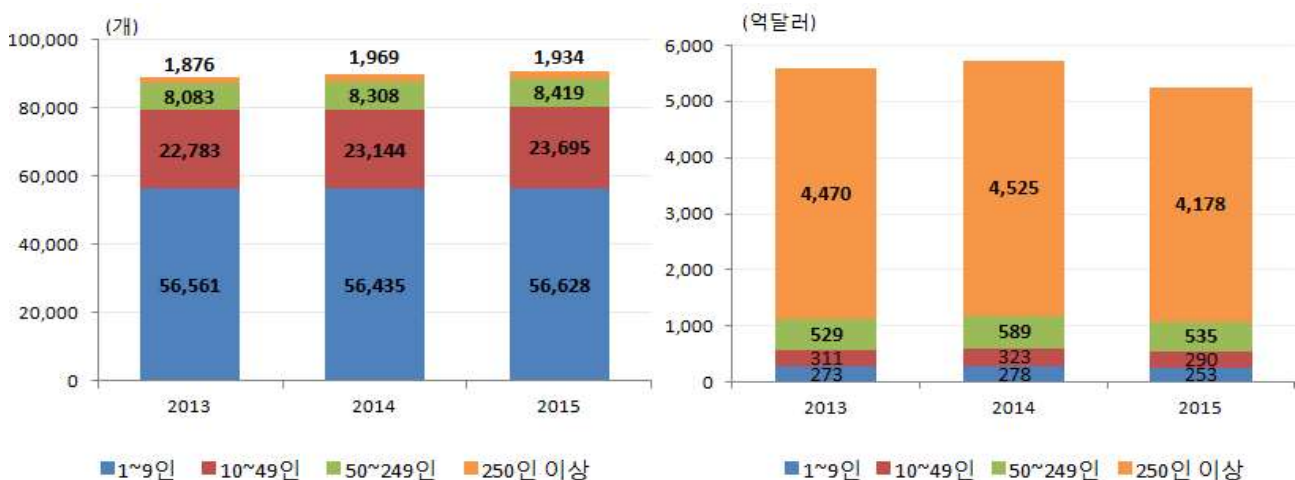
## <부록> 한국 수출 기업 현황과 시사점2)

### 1. 수출기업 수 및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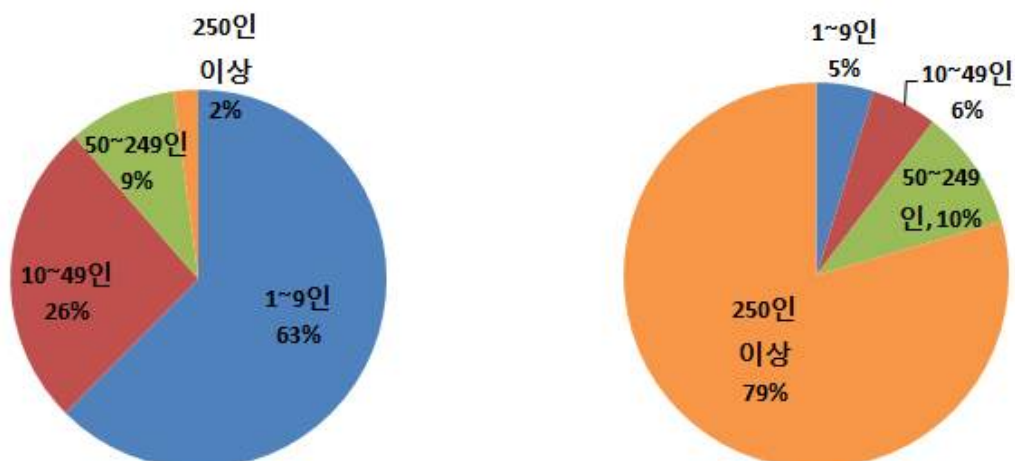
□ 수출기업 90,676개 · 종업원수 250인 미만 수출기업 98%, 88,742개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는 90,676개이며, 이 가운데 종업원수 249인 이하인 중소기업의 수는 98%인 88,742개
- 기업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이 56,628개(62.5%), 10~49인 기업 23,695개(26.1%), 50~249인 기업 8,419개(9.3%), 250인 이상 기업 1,934개(2.1%)

기업 규모별 수출 기업수 및 수출액



기업 규모별 수출 기업수 및 수출액 비중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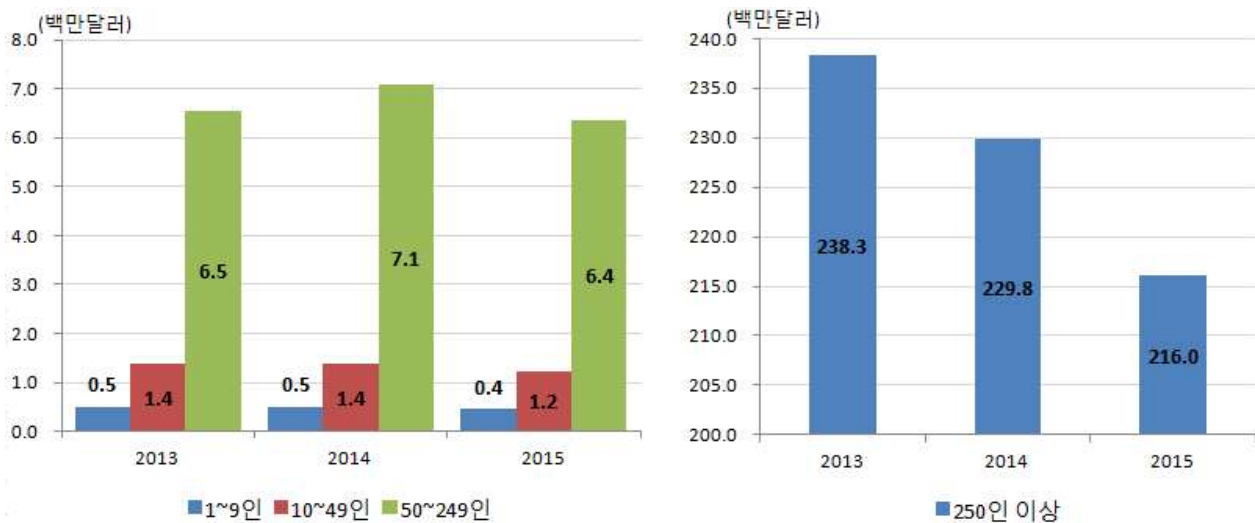
2) 본 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현재 수출기업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 해당 통계는 기업 규모를 4단계(종업원수 1~9인, 10~49인, 50~249인, 250인 이상)로 나누고 있어 중소기업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적인 중소기업 기준에 비추어 종업원수 249인 이하의 기업들을 중소기업으로, 250인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해 집계하였음.

- 그러나 수출액으로 살펴 보면 기업 규모별로 1~9인 기업의 수출액이 233억 달러(4.8%), 10~49인 기업 290억 달러(5.5%), 50~249인 기업 535억 달러(10.2%), 250인 이상 기업 4,178억 달러(79.5%)로 2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20.5%에 불과

- 종업원수 250인 이하 기준이 중소기업 지정 기준과 상이해 2015년 중소기업 수출 비중(18.3%)와 차이가 있음.

- 기업 규모별 평균 연간 수출액은 1~9인 기업의 경우 40만 달러, 10~49인 기업의 경우 120만 달러, 50~249인 기업은 640만 달러 수준이며 25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평균 2억 1,600만 달러 기록

기업 규모별 평균 수출액



수출기업 규모별 현황

	기업수		수출액		평균 수출액(\$)
	수	비중	금액(억\$)	비중	
1~9인	56,628	63%	253	5%	40만
10~49인	23,695	26%	290	6%	120만
50~249인	8,419	9%	535	10%	640만
중소기업 소계	88,742	98%	1,078	21%	-
250인 이상	1,934	2%	4,178	79%	2억 1600만
전체 합계	90,676	100%	5,256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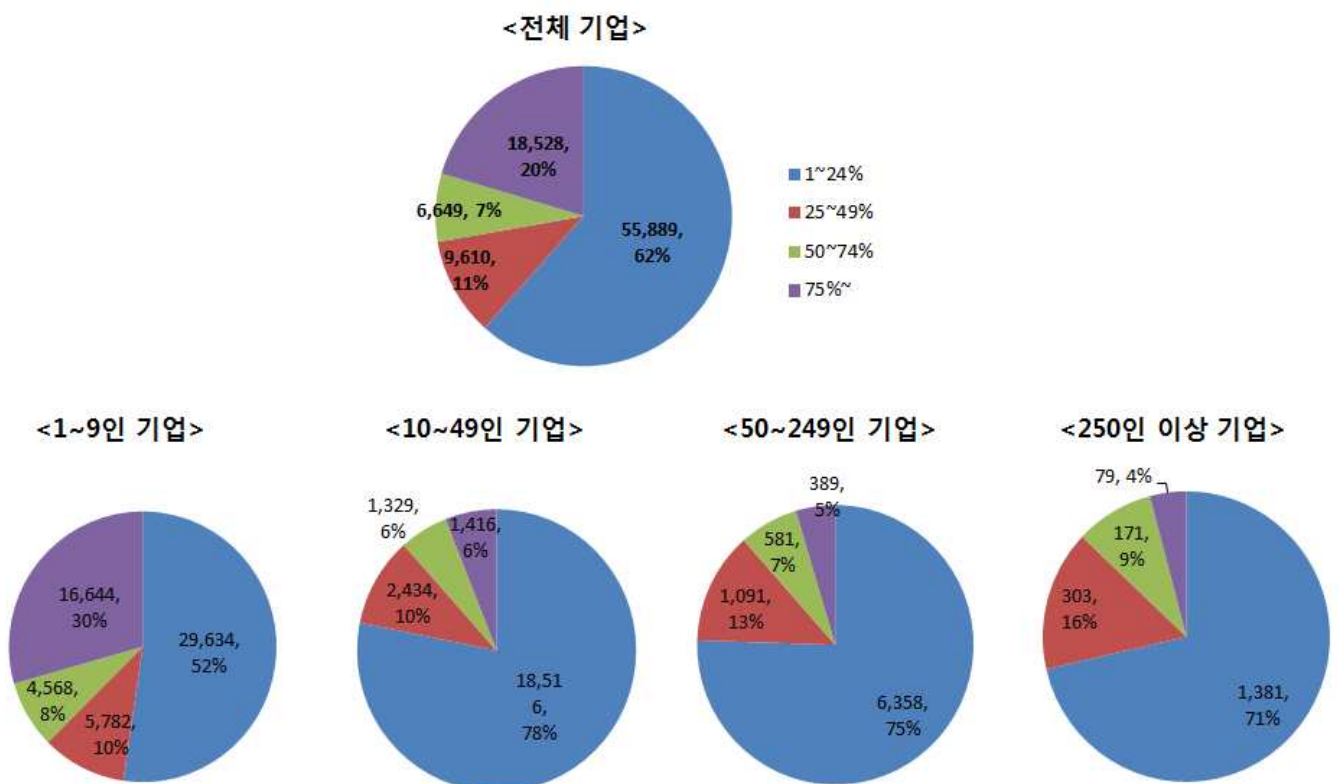
주 : 2015년 기준

## 2. 수출 강도별 분포

### □ 수출 강도 1~24% 그룹 62%, 55,889개로 최다 비중

- 수출기업들의 수출 강도(=수출액/매출액)를 살펴 보면 24% 이하 그룹이 전체 기업의 62%(55,889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75% 이상 그룹이 20%(18,528개)로 두 번째로 많고, 25~49% 그룹이 11%(9,610개)로 세 번째, 50~74% 그룹이 7%(6,649개)로 네 번째 차지 (2015년 기준)
- 수출 강도 75% 이상 그룹은 1~9인 이하 기업 가운데 30%(16,644개)를 차지할 정도로 소기업군에 몰려 있는데, 제조업보다는 수출 활동을 하는 도소매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
- 1~9인 기업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출 강도 24% 이하의 비중이 70% 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강도도 24% 이하(70%대) > 25~49%(10%대) > 50~74%(10% 미만) > 75% 이상(5% 내외) 순으로 집계

수출 강도별 기업 수



### 기업 규모별·수출 강도별 평균 수출액



○ 수출 강도별로 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을 살펴 보면 모든 기업군에서 수출 강도가 높을수록 평균 수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비중이 큰 수출 강도 24% 이하 그룹의 경우 종업원 50~249인 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210만 달러, 25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3,440만 달러

### 3. 수출 재화별 분포

□ 금속제품·기계장비 45%로 최다, 식음료·담배·의류·가죽제품 20%

○ 수출 재화별 기업 수를 살펴 보면, 금속제품·기계장비 수출 기업이 45%(32,82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식음료·담배·의류·가죽제품 등 소비재 수출 기업이 20%(14,512개)로 두 번째를 차지 (2015년 기준)

- 농림수산물 수출 기업은 2%(1,266개), 광물·전기·가스·수도 수출 기업도 1%(533개) 밖에 되지 않으며 기타 수출 기업들이 32%(23,190개)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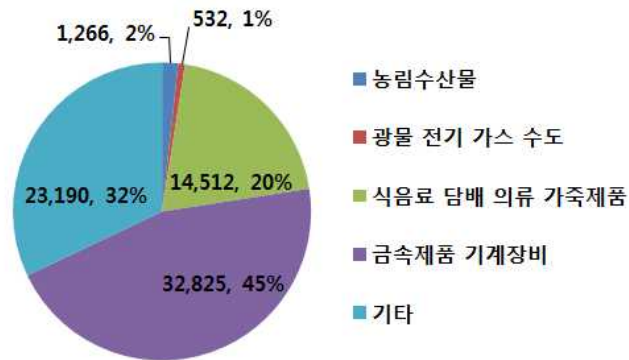
○ 기업 규모별로도 비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금속제품·기계장비 수출 기업의 비중이 250인 이상 기업에서는 40%로 조금 줄지만 그 이하 규모의 기업군에서는 45~50%로 조금 높은 수준

○ 식음료·담배·의류·가죽제품 등 소비재 수출 기업 비중도 15~20% 수준으로 기업군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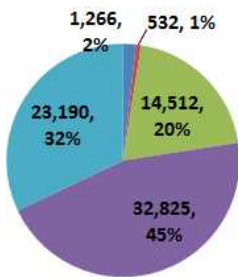


## 수출 재화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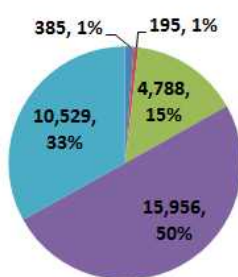
<전체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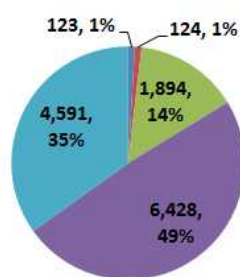
<1~9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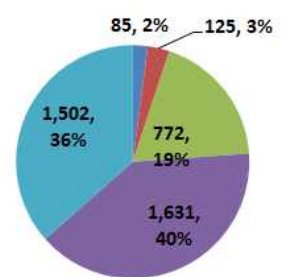
<10~49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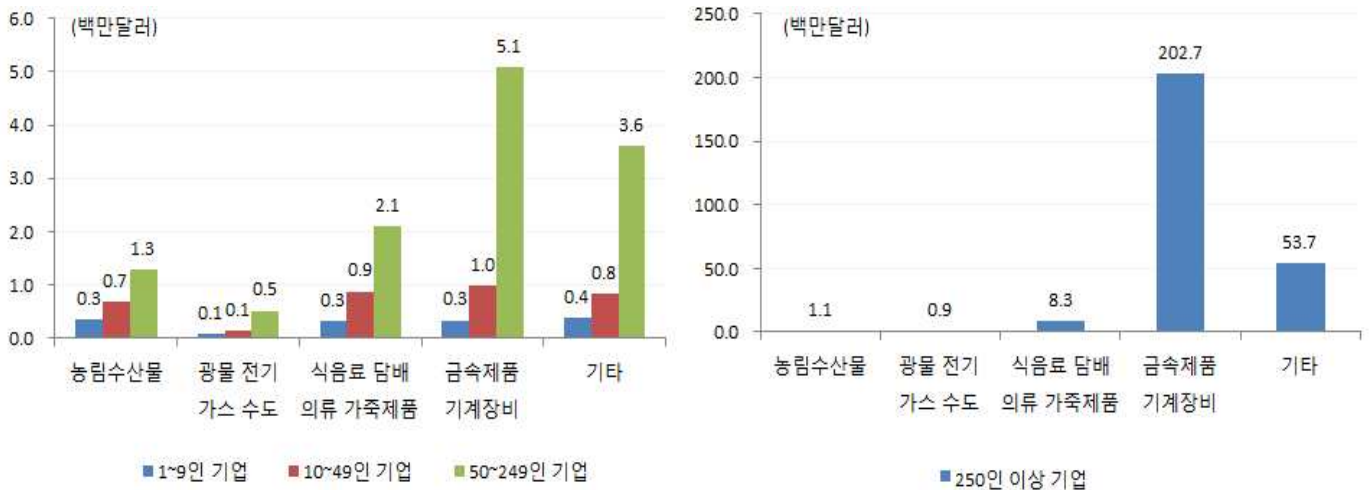
<50~249인 기업>



<250인 이상 기업>



## 수출 재화별 평균 수출액



- 수출 재화별 기업 평균 수출액을 살펴 보면, 금속제품·기계장비 수출 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이 가장 높으며,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계장비 평균 수출액이 높아짐.

- 금속제품·기계장비 평균 수출액은 50~249인 기업의 경우 510만 달러, 25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2억 달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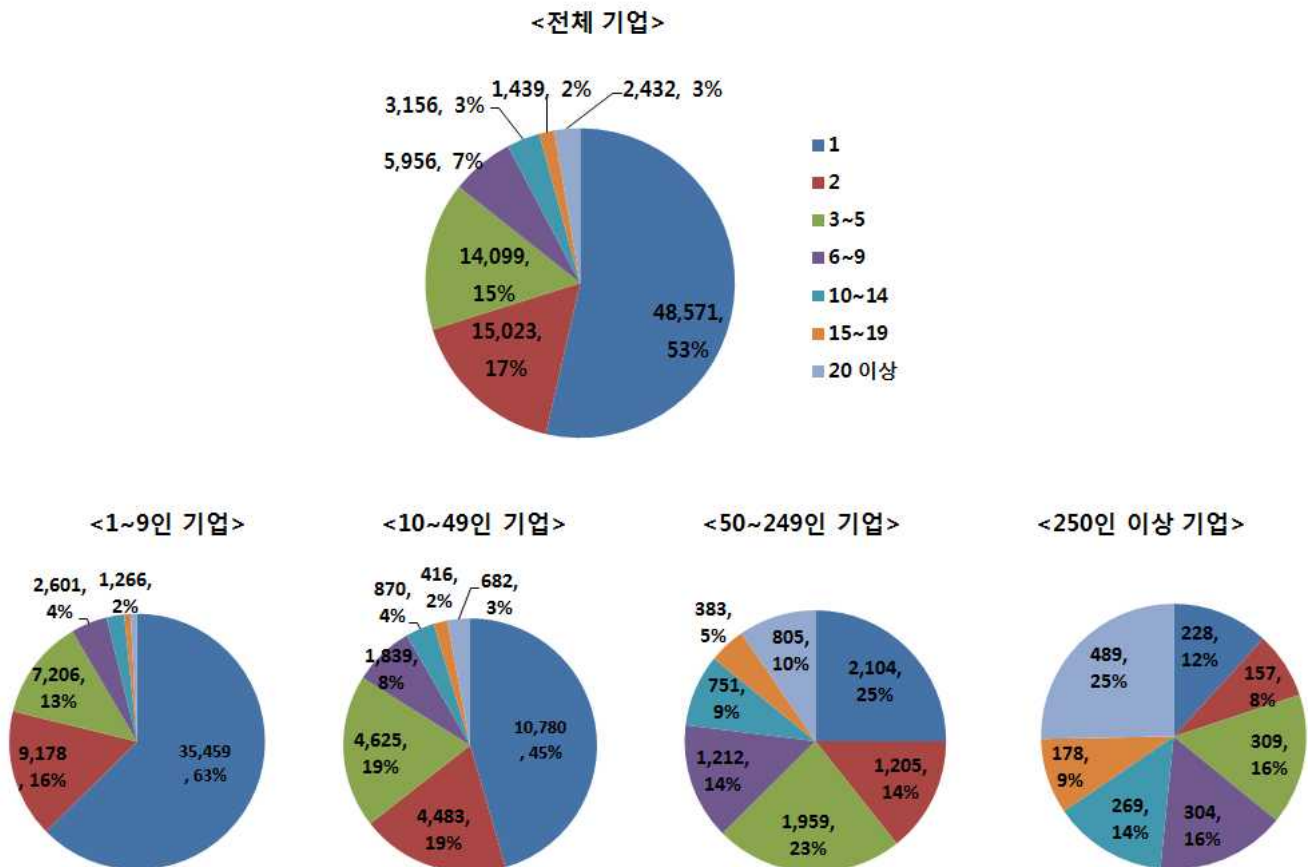
- 반면 식음료·담배·의류·가죽제품 등 소비재 평균 수출액은 50~249인 기업의 경우 210만 달러, 25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830만 달러로 금속제품·기계장비 평균 수출액에 비해 낮음.

#### 4. 수출 국가별 분포

□ 수출 1개국 53%(48,571개), 2개국 17%(15,023개), 3~5개국 15%(14,099개)

- 수출 국가 수별 분포를 살펴 보면, 1국가에만 수출하는 기업이 53%(48,571개)로 가장 많고, 2국가 17%(15,023개), 3~5국가 15%(14,099개), 6~9국가 7%(5,956개) 순 (2015년 기준)

수출 국가 수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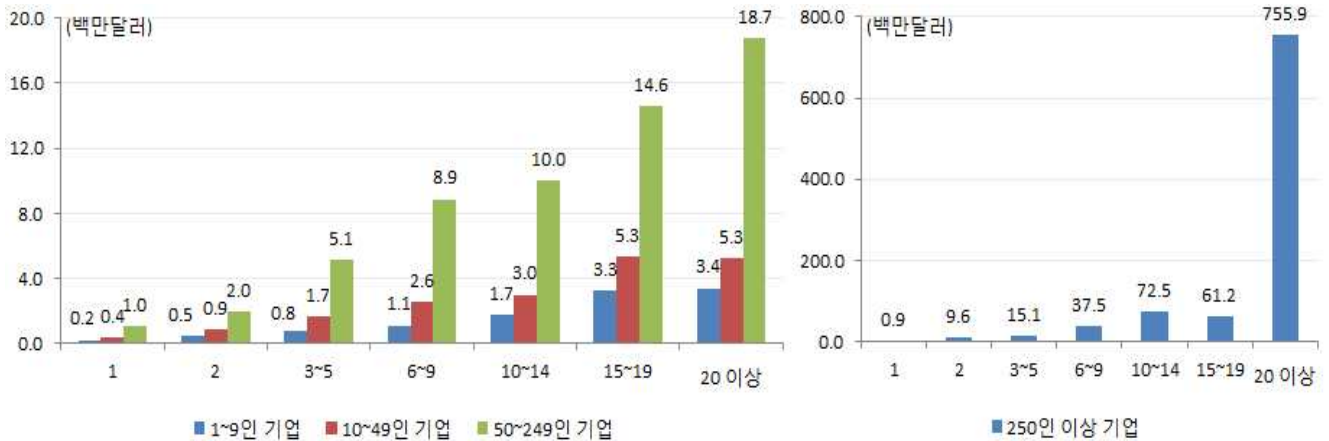
-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수출 국가 수가 늘어나는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수출 국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남.
- 종업원수 250인 이상 대기업을의 경우 20개국 이상 수출하는 기업의 수가 25%(489개)로 가장 많고, 3~5개국 16%(309개), 6~9개국 16%(304개), 10~14개



국 14%(269개) 등 수출 국가 수도 많고 비율도 고르게 분포

- 종업원 수 50~249인 이하 기업들의 경우에도 1개국 25%(2,104개), 3~5개국 23%(1,959개), 6~9개국 14%(1,212개) 등 수출 국가가 다양한 반면, 종업원 수 1~9인 기업들은 63%(35,456개)가 1국가 수출

수출 국가 수별 평균 수출액



- 수출 국가 수별 평균 수출액을 살펴 보면, 종업원 수 249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국가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수출액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 기업이 성장하면서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종업원 수 50~249인 이하 기업군의 경우 20개국 이상 수출 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은 1,870만 달러, 3~5개국 수출 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은 510만 달러, 1개국 수출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은 100만 달러 수준
- 종업원 수 250인 이상 대기업들은 20개국 이상 수출 기업의 평균 수출액이 7억 5,590만 달러로 크게 높은 반면 그 이하의 기업군 평균 수출액은 대부분 100만~700만 달러 수준으로 중소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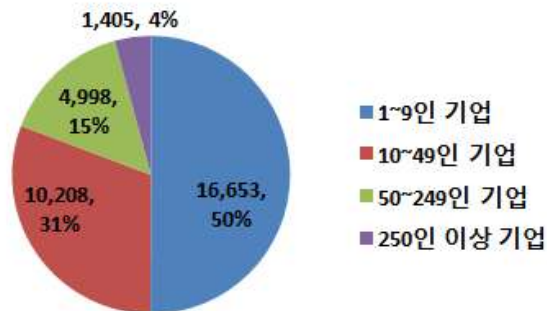
#### □ 수출기업 90% 이상 동남아 수출, 3개 가운데 1개(36.7%) 중국 수출

- 수출기업들의 국가별 수출 상황을 살펴 보면 총 수출기업(90,676개) 가운데 90%가 넘는 82,158개 기업이 동남아 수출을 하고 있어, 동남아 수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5년 기준)
- 다음으로는 EU(54.7%, 49,645개), 중국(36.7%, 33,264개), 일본(22.3%, 20,262개), 미국(21.7%, 19,664개) 순
- 국가별 기업 분포는 대부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나, 중국 수출 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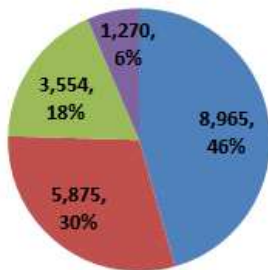
경우 50%가 1~9인 기업일 정도로 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반면, EU지역은 25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이 13%로 타지역에 비해 높고 1~9인 기업의 비중은 33%로 낮음.

### 수출 국가별 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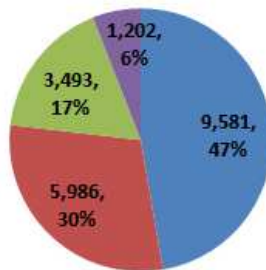
#### <중국(33,26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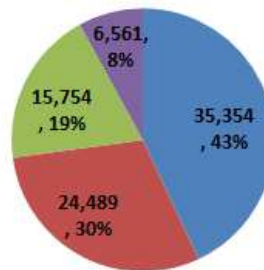
#### <미국(19,66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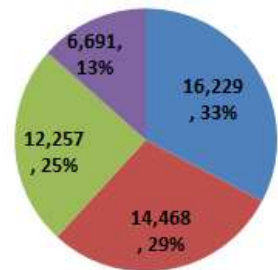
#### <일본(20,262개)>



#### <동남아(82,158개)>



#### <EU(49,64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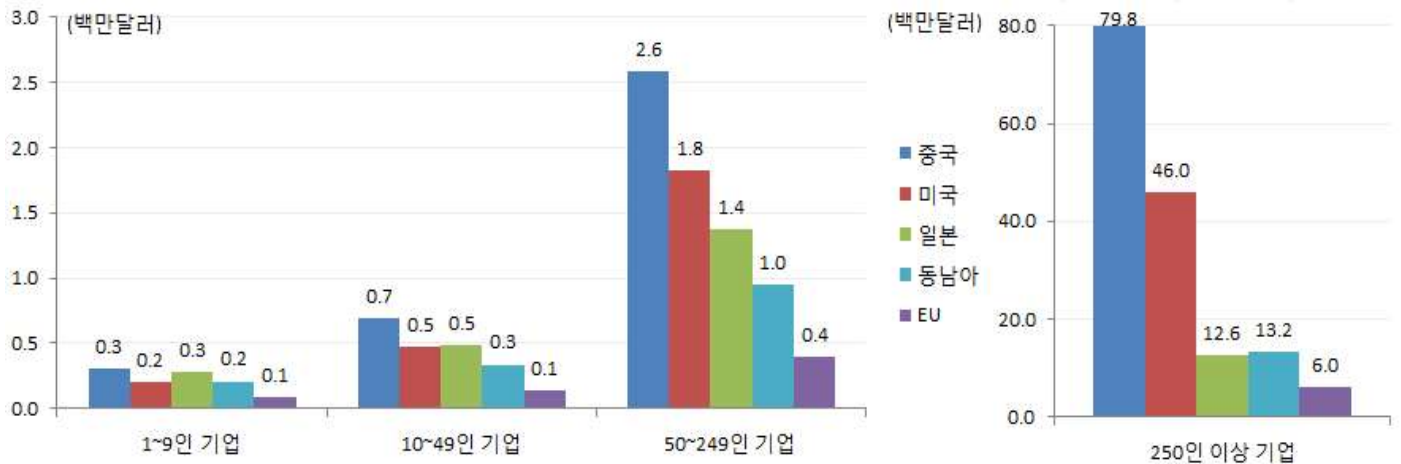
### □ 기업별 평균 수출액 중국 > 미국 > 일본 > 동남아 > EU 순

- 각 지역별 기업 평균 수출액은 기업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중국 > 미국 > 일본 > 동남아 > EU 순으로 평균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 250인 이상 대기업군의 경우 기업당 평균 중국 수출액은 7,980만 달러로 가장 높고, 미국 수출액은 4,600만 달러, 동남아 1,320만 달러, 일본 1,260만 달러, EU 600만 달러 순으로 중국과 미국 지역 평균 수출액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종업원 50~249인 이하 기업군의 경우에도 기업당 평균 중국 수출액은 260만 달러, 미국 180만 달러, 일본 140만 달러, 동남아 100만 달러, EU 40만 달러 순으로 집계되며 그 이하 기업군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냄.
- 반면 종업원수 1~9인 기업군, 10~49인 기업군들은 일본 수출액이 타 기업군

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수출액은 각각 30만 달러, 50만 달러로 절대 금액 수준은 높지 않음.

- 종합하면 동남아와 EU지역은 수출 기업들의 수는 많지만 기업당 수출액은 높지 않은 반면, 중국과 미국은 주력 수출지역인 기업이 많아 기업당 평균 수출액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수출 국가별 평균 수출액



## 5. 소결

□ 수출기업 90,676개 · 종업원수 250인 미만 수출기업 98%, 88,742개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는 90,676개이며, 이 가운데 종업원수 249인 이하인 중소기업의 수는 98%인 88,742개
- 98%의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5,256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078억 달러) 수준

#### 수출기업 규모별 현황

	기업수		수출액		평균 수출액(\$)
	수	비중	금액(억\$)	비중	
1~9인	56,628	63%	253	5%	40만
10~49인	23,695	26%	290	6%	120만
50~249인	8,419	9%	535	10%	640만
중소기업 소계	88,742	98%	1,078	21%	-
250인 이상	1,934	2%	4,178	79%	2억 1600만
전체 합계	90,676	100%	5,256	100%	-

주 : 2015년 기준

- 중소기업군 가운데 기업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춘 50~249인 기업군들은 수출 기업 가운데 9%(8,419개), 전체 수출액에서는 10%(535억 달러)를 차지하며, 평균 수출액은 640만 달러 수준
- 수출 강도(=수출액/매출액)는 1~24% 그룹이 전체의 62%, 25~49% 그룹이 11%, 50~74% 그룹이 7%, 75% 이상 그룹이 20% 차지
  - 수출 강도 75% 그룹의 경우 1~9인의 도소매업 소기업 비중이 높아 이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기업 규모에서 24% 이하(70%대) > 25~49%(10%대) > 50~74%(10% 미만) > 75% 이상(5% 내외) 순으로 분포
- 수출 재화별로는 금속제품·기계장비가 45%(32,825개), 식음료·담배·의류·가죽제품 등 소비재 20%(14,512개), 농림수산물 2%(1,266개), 광물·전기·가스·수도 1%(533개)며 기타 품목이 32%(23,190개) 차지하며, 기업 규모별 차이도 크지 않음.
- 수출 재화별 기업 평균 수출액은 금속제품·기계장비 수출 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이 가장 높으며,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금속제품, 기계장비 평균 수출액이 높아짐.
  - 50~249인 기업군의 금속제품·기계장비 평균 수출액은 510만 달러, 소비재 평균 수출액은 210만 달러인 반면, 250인 이상 기업군의 금속제품·기계장비 평균 수출액은 2억 달러, 소비재 평균 수출액은 5,370만 달러
- 수출 국가 수별 분포를 살펴 보면, 1국가에만 수출하는 기업이 53%(48,571개), 2국가 17%(15,023개), 3~5국가 15%(14,099개), 6~9국가 7%(5,956개) 순
- 수출 국가 수별 평균 수출액은 중소기업 대부분 수출 국가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수출액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 기업이 성장하면서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50~249인 기업군의 경우 1개국 수출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은 100만 달러, 20개국 이상 수출 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은 1,870만 달러
- 각 지역별 기업 평균 수출액은 대부분의 기업 규모에서 중국 > 미국 > 일본 > 동남아 > EU 순으로 평균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기업 수 9% 50~249인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확대 필요

-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연평균 수출액이 100만 달러가 되지 않는 1~9인

소기업이 63%나 되는 등 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수출 국가 및 수출 재화 구성에 있어 기업 규모별로 특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기업 수로는 2%에 불과한 250인 이상 대기업들이 전체 수출액의 79%를 차지하는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며, 이러한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군 가운데 성장 규모를 갖춘 50~249인 이하 기업군의 기업 수(9%) 및 수출액(10%) 비중을 현 수준에서 늘려 중간그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종업원 수 50~249인 기업군의 경우 수출 국가가 늘어나면 평균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성장의 측면에서도 해당 기업군의 수출 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50~249인 기업군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이후 중견·대기업 이상 단계로 진입하기까지 성숙기를 보내는 중요 단계로, 수출 활동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체 혹은 쇠퇴할 수 있어 수출 활동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출기업 규모별 현황 및 성장 과정

